



산업 · 경제

제1장 증평군 산업 · 경제 개관

제2장 증평군 산업 · 경제 현황





제장 증평군 산업·경제 개관

김진덕 집필

제1절 증평지역 경제연혁

제1절

1. 산업화 이전 증평 경제의 위상

1980년대 이전까지 증평은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농업 중에서도 특히 쌀이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경제는 자급자족이 일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대외 지향적이기보다는 대내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 식민지 지주제가 관철되면서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증평의 농업구조는 더욱 고착됐다.

1945년 이후 1958년 이전까지의 농업에 있어서 경지면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논·경지면적은 1945년 7,631반(反)이었으나 1958년에 9,697반(反)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증평군의 농업이 쌀을 중심으로 하는 논농사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수를 보더라도 1945년 벼농사를 재배한 농가수는 858농가였는데 1958년에는 1,319호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쌀 수확량이 1945년에 비해 1958년에 아주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송산, 연탄리 항공전경

● 표 1. 산업화이전 증평군의 농업현황

(단위 :반(反), 호(戶), 합(合), 석(石))

지 소	농 지 면 적			농 가 호 수			미작수확고	
	답	전	계	답작	전작	합계	반당수확고	총수확고
1945	7,631	6,721	14,352	858	829	1,687	850	6,429
1958	9,697	7,060	16,757	1,319	450	1,769	1,410	13,114

■ 증평군 내부자료

산업기 이전에 증평군에서도 잡업이 성행했는데 주로 춘잠의 비중이 높았고 추잠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잡업을 위한 상전(桑田=뽕나무)의 재배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에 접어들면서 점차로 잡업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산업기 이전의 축산업을 보면 주로 닭과 돼지의 사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의 사육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돼지사육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증평군의 삼겹살 축제가 이러한 오랜 기간동안 돼지사육의 노하우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이전 공장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면 동창철공소가 1942년에 증동에 설립된 이래 증평철공소, 창동토기공장, 증평연와공장, 증평토기공장, 기와공장 등의 비금속 광물 제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58년에는 연탄 공장이 설립돼 19공탄을 생산하게 됐다.

그리고 1958년에 증평리에 두부공장이, 1957년에 콩나물 공장이 연탄리에 각각 설립됨으로써 음식료품 산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1925년 잡업감습소
(현 음성식당자리)

그러나 그 이후 1960년대까지 특별한 변화 없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됐다. 이러한 전통적인 요인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 증평은 1960년대부터 시행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즉 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정부가 1960년대 말부터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특히 국토이용의 편재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때부터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고, 그 결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공포되면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증평지역도 이 계획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됐다.

이후 1970년대까지 인구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증평의 경제는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농업중심

사회에서 탈농업의 산업사회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2. 산업화 이후 증평 경제의 변화

순수농업지역이었던 증평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36번 국도와 34번 국도를 중심으로 공장들이 서서히 들어서면서 현실화 됐다. 차츰 음식료품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걸쳐 전통공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공업화가 진행돼 음식료품 분야와 비금속광물 분야, 섬유제품제조 분야 등에서 다수의 업체가 신설됐다.

1987년에 서울-대전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돼 증평을 지나게 되면서 기존의 36번 국도와 34번 국도 등과 함께 증평의 입지조건이 급속히 향상돼 이 지역의 공업화에 속도가 가해졌다.

1990년 괴산군에서 증평출장소로 분리되면서 증평지역의 경제 및 산업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증평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정책의 수행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공업화는 전기전자분야와 기계조립 분야가 크게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들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신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증평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증평읍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도 했다.

1998년 이후 전국민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증평지역에서도 외환위기의 그림자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됐고, 이러한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증평지역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증평군으로의 승격이 절실히 요구됐다.

증평지역 노력의 결실로 2002년 4월에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하게 됐고, 2003년 4월 30일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3년 5월 23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2003년 5월 29일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2003년 8월 30일 증평군(증평읍, 도안면)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증평지역이 군으로 승격되면서 산업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단순한 미작농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미쌀, 질흙



증평IC ↔ 괴산간 화성교차로

소담미 등의 상표를 개발한 쌀을 생산하고 증평의 특산물 인삼의 재배면적의 확대에도 기여하는 등 증평균 승격 이후 증평균의 농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또한 산업면에 있어서도 음식료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 오면서 첨단산업의 육성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다. 첨단산업의 대표주자인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은 2003년 현재 사업체수 6곳, 종사자수 632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증평균 생산액의 절반 이상이 바로 첨단산업인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증평균 승격 이후 산업·경제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제2절 증평의 경제적 기반

1. 토지

1) 행정적인 토지현황 및 행정구역 면적 현황

증평균은 괴산, 청원, 음성 등 4개 군에 둘러싸여 동쪽으로는 괴산군 사리면, 청안면과 서쪽으로는 청원군 북이면 및 진천군 초평면, 남쪽으로는 청원군 북이면, 북일면 및 미원면과 북쪽으로는 음성군 원남면 등이 각각 인접하고 있다.

증평균의 지목별 면적을 살펴보면 임야의 경우 41.33km²로 증평균 총 면적에서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는 26.01km²로 증평균 총면적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km², %)

산업분류별		계		임 야		경 지		기 타	
		면 적	비 중	면 적	비 중	면 적	비 중	면 적	비 중
총 북		7,431.60	100.0	5,055.34	68.0	1,447.66	19.5	928.60	12.5
증 평 군		81.84	100.0	41.33	50.5	26.01	31.8	14.5	17.7
읍 · 면	증 평 읍	55.42	100.0	26.78	48.3	18.22	32.9	10.42	18.8
	도 안 면	26.42	100.0	14.55	55.1	7.78	29.4	4.09	15.5

☞ 증평균, 통계연보

〈표 2〉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증평균은 임야와 경지가 전체 면적의 82.3%를 차지하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충북의 평균 비중과

비교해 보면 임야의 경우 충북이 68.0%를 나타내며 증평군은 임야의 비중이 50.5%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지의 비중을 살펴보면 충북의 경우 19.5%지만 증평군의 경우 31.8%로 높은 경지면적을 보이고 있다.

증평읍과 도안면의 지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임야의 경우 증평읍에 비해 도안면의 임야 비중이 높으며, 경지의 경우에는 증평읍이 도안면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증평군의 토지이용 변천을 살펴보면 경지, 임야가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며, 토지의 이용 변천이 없이 모든 종목의 토지면적들이 큰 변동 없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 증평군이 제조업보다 농업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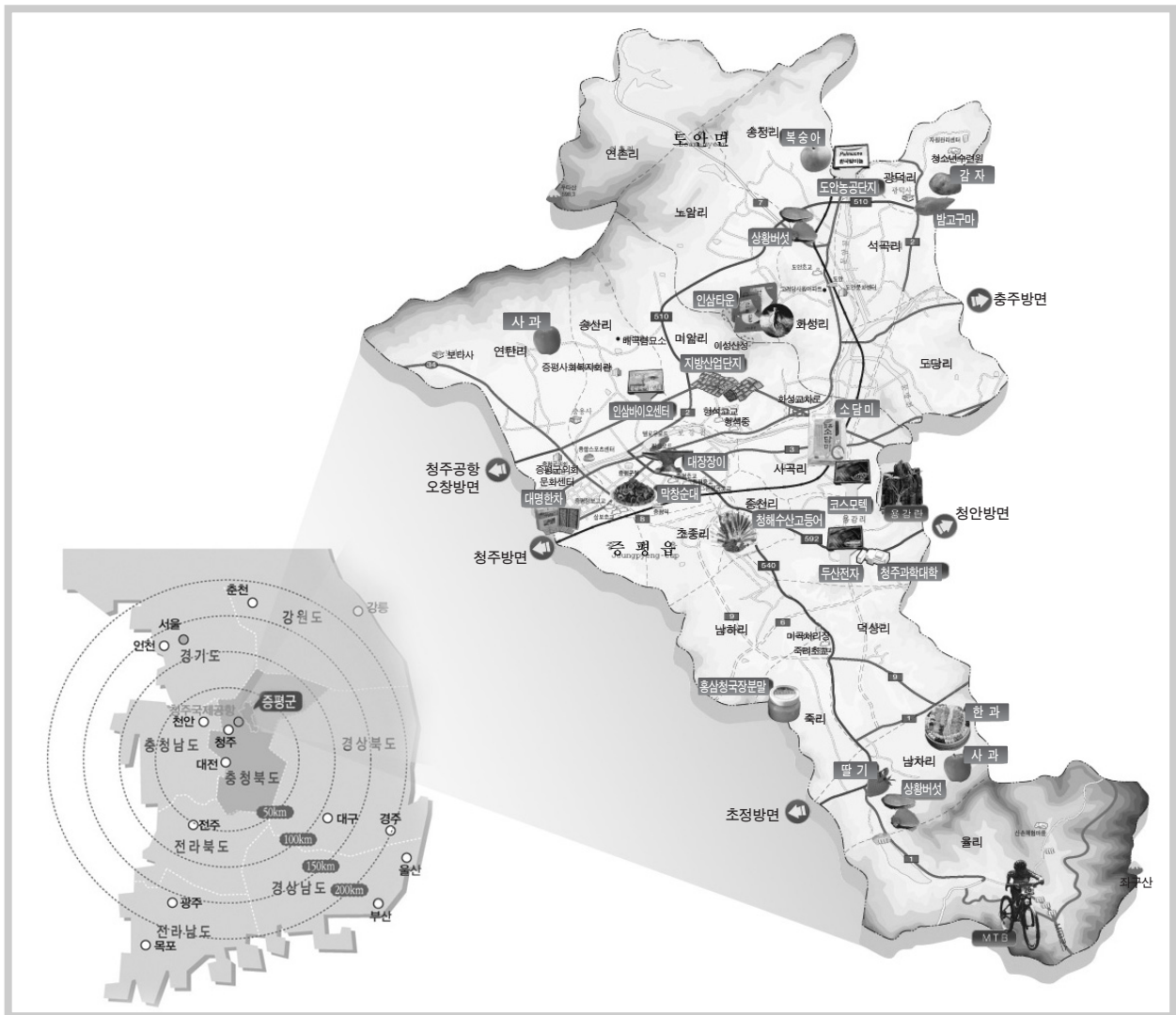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단위 : km², %)

●● 표 3. 지목별 토지이용 변천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면적	비중
경 지	27.18	33.21	27.11	33.13	26.97	32.95	26.50	32.38	26.46	32.33	26.42	32.28	26.01	31.78
과 수 원	0.26	0.32	0.26	0.32	0.24	0.29	0.24	0.29	0.24	0.29	0.24	0.29	0.22	0.27
목 장 용 지	0.12	0.15	0.16	0.20	0.21	0.26	0.21	0.26	0.22	0.27	0.23	0.28	0.23	0.28
임 야	41.52	50.73	41.5	50.71	41.5	50.71	41.49	50.7	41.48	50.68	41.47	50.67	41.33	50.50
대 지	3.08	3.76	3.10	3.79	3.12	3.81	3.42	4.18	3.44	4.20	3.39	4.14	3.41	4.17
공 장 용 지	0.35	0.43	0.34	0.42	0.34	0.42	0.36	0.44	0.28	0.46	0.39	0.48	0.42	0.51
학 교 용 지	0.27	0.33	0.27	0.33	0.27	0.33	0.27	0.33	0.27	0.33	0.27	0.33	0.35	0.42
도 로	2.20	2.69	2.20	2.69	2.21	2.70	2.36	2.88	2.36	2.88	2.35	2.87	2.70	3.30
철 도 용 지	0.45	0.55	0.45	0.55	0.45	0.55	0.44	0.54	0.44	0.54	0.44	0.54	0.43	0.53
하 천	2.26	2.76	2.26	2.76	2.26	2.76	2.26	2.76	2.26	2.76	2.24	2.74	2.26	2.76
제 방	0.19	0.23	0.19	0.23	0.19	0.23	0.19	0.23	0.19	0.23	0.19	0.23	0.19	0.23
구 거	2.45	2.99	2.44	0.98	2.43	2.97	2.42	2.96	2.41	2.95	2.43	2.97	2.45	2.99
유 지	0.76	0.92	0.75	0.92	0.75	0.92	0.74	0.90	0.74	0.91	0.74	0.90	0.74	0.90
수 도 용 지	-	-	-	-	-	-	-	-	-	-	0.94	0.05	0.04	0.05
공 원	-	-	-	-	-	-	0.03	0.04	0.03	0.04	0.03	0.04	0.03	0.04
유 원 지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종 교 용 지	0.02	0.02	0.02	0.02	0.03	0.04	0.03	0.04	0.03	0.04	0.04	0.05	0.05	0.06
묘 지	0.13	0.16	0.13	0.16	0.13	0.16	0.13	0.16	0.13	0.16	0.13	0.16	0.13	0.16
잡 종 지	0.6	0.73	0.64	0.78	0.73	0.89	0.74	0.90	0.75	0.92	0.79	0.97	0.66	0.81
합 계	81.84	1,998	81.83	100	81.84	100	81.84	100	81.84	100	81.84	100	81.84	100

2) 증평의 지리적인 특징



증평군의 위치

증평군은 지리적으로 청주 광역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괴산, 진천, 음성 등 4개군에 둘러싸여 있어 보은군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의 통행량이 많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장소가 가깝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충북의 남부와 북부개발 축을 연결하는 결절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의 요충지로서 충북지역의 산업경제권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수도권 및 대전권 등 국내시장의 접근이 용이하며, 청주-속리산권, 충주호권 등의 주요관광권과 결절지에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크다.

그러나 증평군을 둘러싼 노령산맥으로부터 소규모의 하천이 발전됐을 뿐 아니라 타지역에서 이어지는 수계가 형성되지 않아 용수가 부족하며, 지하수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수원이 동남부에서 형성돼 서북부로 흐르기 때문에

수계방향과 풍향이 불일치해 공업배치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증평군의 북부는 넓은데 비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좁고 길어 토지이용, 시설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없고, 지역내의 결집력도 떨어져 공간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R&D 관련 기관 및 고급 두뇌들의 지역 내 유치로 증평군의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의 이전으로 민간수요 증대, 국제 교류 기능 확대, 고급 여가수요의 확대 등 신규 인력수요의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교통·경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인구

성장하는 경제의 특징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인구 증가이다. 인구증가가 이동에 의한 유입이든, 자연증가이든 간에 경제활동 인구의 성장이야말로 산업생산과 각종 경제활동을 성장시켜 줄 원천이기 때문이다.

증평의 경우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꾸준한 증가를 보였지만, 1990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연소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와 함께 고령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증평군의 인구는 1980년에 32,175명으로 조사됐으며, 1990년에는 41,017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1995년에 33,300명, 2002년에는 30,94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군 승격 이후 인구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2003년 현재 31,520명으로 승격 이전보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에 의한 인구를 보면 2003년을 100%로 놓고 보면 증평읍에 증평군 인구의 90.5%가 거주하며 도안면에는 9.5%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증평읍이 도안면보다 면적이 2배정도 큰 이유도 있지만 증평군의 인구가 중심지인 증평읍에 집중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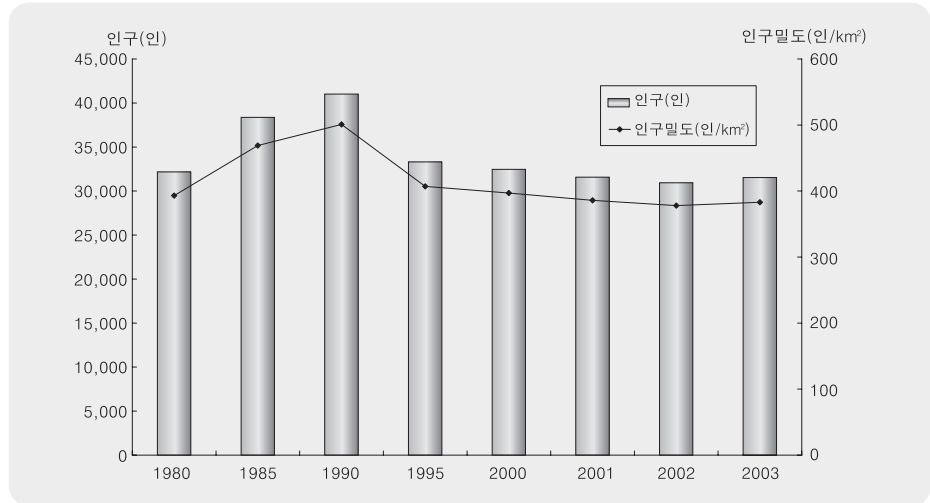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들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주) 1990년 이전 세대 및 인구는 상주인구통계조사 결과이며, 이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

● 표 4. 인구현황 및 인구밀도

(단위 : 인, %, 인/km²)



현 증평읍시가지

또 한가지 보아야 할 것이 증평군의 인구가 199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증평군으로 승격한 이후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구의 증가와 감소는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증감과 지역간 이동에 의한 증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증평군의 경우는 연소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에 의한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나, 군 승격 이후 인구이동에서는 전출인구

에 비해 전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소인구(14세 이하)의 경우 1996년에 23.6%의 인구 구성비를 차지했지만 2003년에는 20.6%로 하락했다. 생산인구(15-64세) 역시 1996년의 69.2%에서 2002년에는 66.7%로 감소했다.

그러나 증평군으로 승격한 이후 증평군의 생산인구는 전년보다 2.3%p 증가한 69.0%로 나타나 향후 생산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96년 7.3%에서 2003년 10.7%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증평군은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이며 향후 출산율 저조, 의학분야의 발달, 생명에 대한 관심고조 등에 힘입어 증평군의 인구도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평군의 남녀를 비교해 볼 때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약간 많다. 연소인구(14세 이하)의 경우에는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에 비해 증평군의 인구 구성비에서 0.5% 높으며, 생산인구(15-64세)의 경우에도 남성인구가 4.9%나 많다.

● ● 표 5. 연령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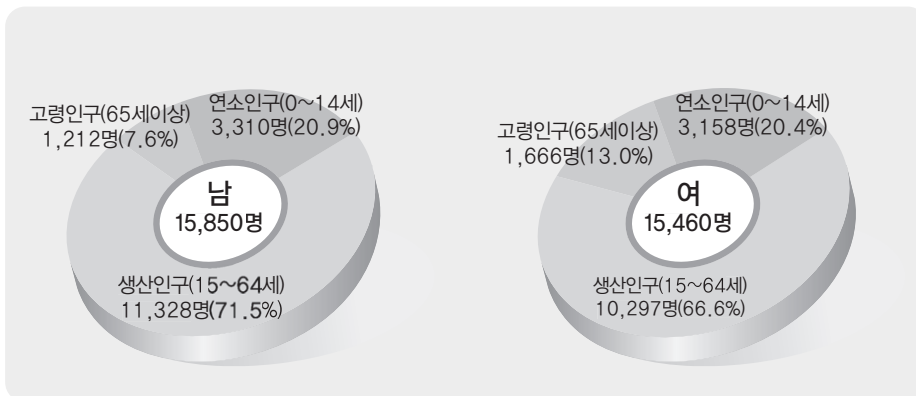
(단위 : 명, 구성비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소인구 (0-14)/A	7,890 (23.6)	7,649 (23.1)	7,510 (22.8)	7,480 (22.5)	7,149 (22.1)	6,749 (21.5)	6,474 (22.6)	6,468 (20.6)
생산인구 (15-64)/B	23,154 (69.2)	22,943 (69.3)	22,823 (69.2)	23,077 (69.4)	22,272 (69.0)	21,679 (69.1)	21,206 (66.7)	21,625 (69.1)
고령인구 (65세이상)/C	2,431 (7.3)	2,535 (7.7)	2,629 (8.0)	2,684 (8.1)	2,865 (8.9)	2,964 (9.4)	3,058 (10.7)	3,217 (10.3)
유년인구부양비 (A/B)	34.1	33.4	32.9	32.4	32.1	31.1	30.5	29.9
총인구부양비 (A+C)/B	44.5	44.3	44.0	44.4	44.9	44.8	44.9	44.7

반면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여성인구가 남성인구에 비해 5.4%나 많아 고령화 되면서 여성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 표 6. 성별 인구구조

(단위 : 명,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충청북도 증평군, 통계연보, 2003.

증평군 인구의 자연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출생이 사망보다 많아 자연 증감에 의한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의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는 341명이었으며, 자연증가는 서서히 감소해 2003년에는 82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출생률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보건 환경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하락한 이유가 크다.

출생 인원을 살펴보면 1997년에 549명이었으나 2002년엔 351명으로 계속

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사망률은 1997년 208명에서 2003년에는 220명으로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표 7. 인구동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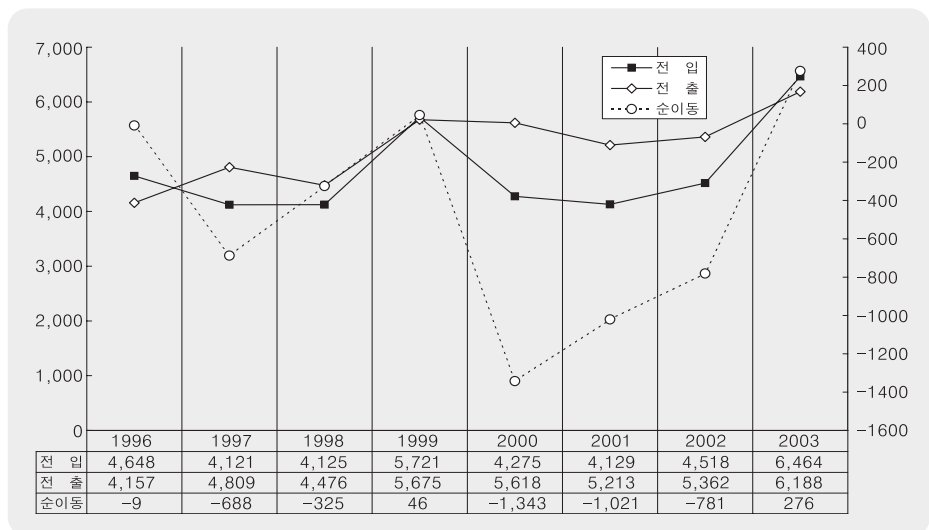
연도	출생			사망			출생:사망
	계	남	여	계	남	여	
1997	549			208			+341
1998	489			247			+242
1999	494			226			+268
2000	473			192			+281
2001	344			221			+123
2002	351	158	193	200	120	80	+151
2003	302	139	163	220	118	102	+80

충청북도 증평군, 통계연보, 2003.

증평군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96년에 전입과 전출의 차이가 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인 1997년과 1998년에 688명과 325명으로 증평군에서 전출한 인구가 전입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 표 8. 인구이동

(단위 : 명)



1999년에 전출보다 전입이 46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후에는 2000년 1,343명, 2001년 1,021명, 2002년 781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승격 이후인 2003년에는 276명으로 전출인구에 비해 전입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전입인구의 증가율이 전출인구의 증가율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평군의 전입·전출에 의한 인구감소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 경제활동인구

증평군의 인구는 2003년 현재 31,520명으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현상이 나타난 후 2002년 들어 증평의 군 승격으로 인해 인구의 감소현상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연소인구(14세 이하)의 경우는 199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15세 - 64세이하)는 1996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1999년 잠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반전하고 있다.

또한 증평군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고, 2003년 현재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노년인구/연소인구(0-14세))가 49.7%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증평군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현재 10.7%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출산을 저조, 군인구유출의 심화 등의 요인이 작용할 경우 전체인구 중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초과하게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증평의 경제적 구조

제3절

증평군의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현재 총 2,195개 사업체 중 도·소매업이 629개로 28.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공공 및 개인 서비스업이 594개로 27.1%, 숙박 및 음식점업이 503개로 22.9%, 제조업이 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대비 증감률($(\text{금년도 사업체수} - \text{전년도 사업체수}) / \text{전년도 사업체수} \times 100$)로 보면 농업 및 임업이 20%로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금융업이 1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2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로 보면 2003년 현재 전체 종사자 8,712명 중 2,206명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종사자 중 25.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행정 및 공공서비스업이 18.9%, 도·소매업이 16.9%, 숙박 및 음식점업이 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년대비 증감률($(\text{금년도 종사자수} - \text{전년도 종사자수}) / \text{전년도 종사자}$

수) 100)로 보면 제조업 부문만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두자리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는 전년에 비해 2.1% 증가했으나 종사자수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업의 형태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 표 9. 산업분류별 사업체 현황

(단위 : 명)

산업분류별	2002		2003		증 감 율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업 및 임업	5	54	4	60	-20.0	11.1
광업	1	14	1	25	0	78.6
제조업	186	2,308	190	2,206	2.1	-4.5
건설업	31	274	34	324	9.6	18.2
도 · 소매업	644	1,425	629	1,475	-2.4	3.5
숙박 및 음식점업	465	1,041	503	1,130	24.3	8.7
운수업	204	362	213	369	4.4	1.9
금융 및 보험업	30	344	27	359	-10.0	4.4
행정 및 공공	142	1,380	152	1,650	7.0	19.6
서비스	410	992	442	1,114	7.8	12.3
계	2,118	8,194	2,195	8,712	3.6	6.3



제2장 증평균 산업 · 경제 현황

김진덕 집필

제1절 농 · 임업

제1절

1. 농업환경 및 기반

1) 기후 및 토지 · 경지면적

(1) 기후

우리나라 농업은 관개시설의 증가와 농업기계화 등으로 많이 현대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증평균의 경우에도 농업이 산업의 기반이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은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중요하다.

증평균은 9.83℃ 정도의 대체로 일정한 평균기온을 보이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2003년도 평균기온은 1997년보다 1.9도 높은 10.5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봄 · 가을은 온난하고, 여름에는 대체로 무더운 편이다. 바람은 평균 0.84m/s로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며, 일조량은 많은 편이다.

또한 강수량은 연도별로 다소의 변화가 있지만 평균 1,154.84mm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있다. 증평균에서 농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기후적인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강수량의 변화를 보면 2001년도 759mm로 평균 강수량에 크게 못미치는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나 2003년도에는 1,604mm로 평균 강수량을 크게 웃도는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강수량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 증평균의 기상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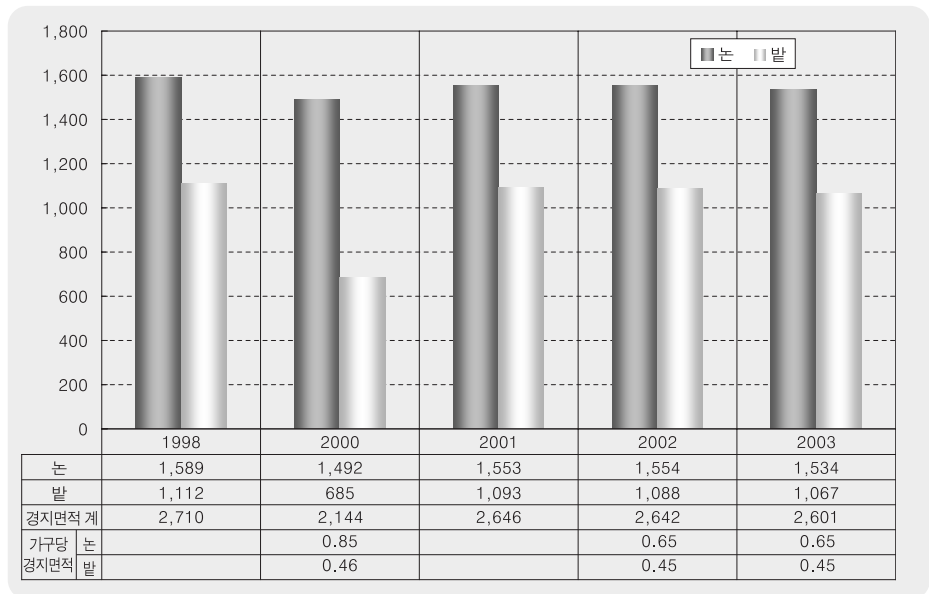
구분	기온(℃)			강수량 (mm)	바람(m/s)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대
1997	8.6	35.0	-17.4	1,364.9	0.6	5.5
1998	9.7	33.9	-16.0	1,592.9	0.6	5.5
1999	9.6	34.6	-16.0	1,366.6	0.4	7.0
2000	9.5	35.0	-17.4	1,362.0	0.8	18.9
2001	10.5	35.2	-18.4	759.0	0.9	15.4
2002	10.4	32.4	-17.8	1,395.1	1.4	15.9
2003	10.5	31.3	-20.5	1,604.0	1.2	19.5
평 균	9.83	33.91	-17.64	1,154.84	0.84	12.53

(2) 토지 · 경지면적

증평균의 총 경지면적은 1997년의 2,717ha에 비해 2002년이 2,601ha로 116ha가 줄어든 상태이며, 논·밭의 면적보다 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들었다.

●● 표 11. 증평균의 경지면적

(단위 : ha)



가구당 경지면적 역시 2000년의 경우 논·밭의 가구당 경지면적은 0.85ha였으나 2003년에는 0.65ha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단위 영농을 하는 농가보다는 소규모이며 영세한 농민층이 증가했음을 뜻한다. 밭의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함과 함께 가구당 경지면적 역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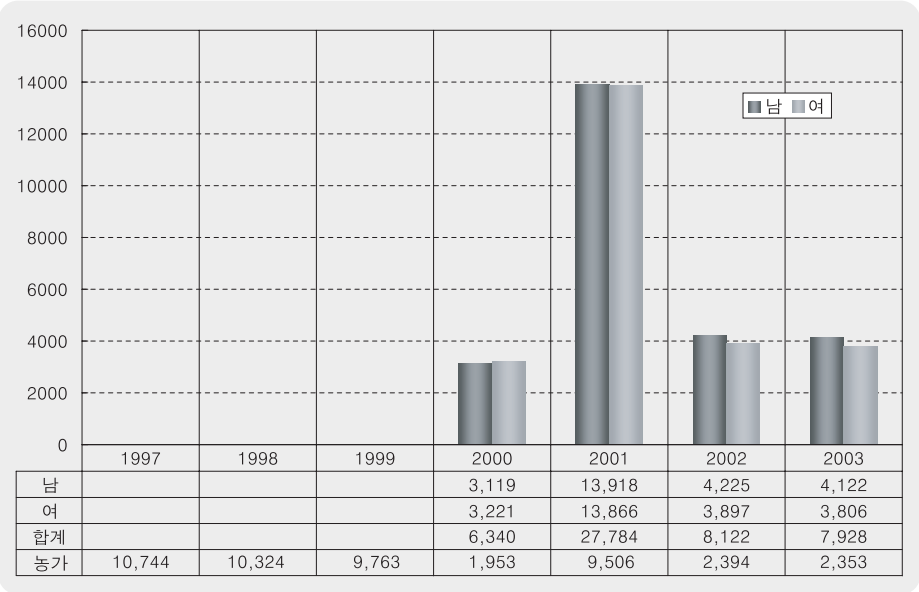
2) 농가 및 농가인구

증평군의 농가 및 농가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1999년까지와 2001년도 자료가 괴산군 전체자료로 표시돼 있어 정확한 추세를 알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 농어업 총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는 1,953가구이며, 농가인구는 6,340명으로 남성이 3,119명, 여성이 3,221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후 농가 및 농가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3년도에는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으나 2001년도의 통계자료가 미미한 관계로 정확한 추세를 알아볼 수는 없다.

● ● 표 12.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명)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군 승격이후인 2003년 농가 및 농가인구 자료를 보면 농가수는 2,353가구로 전년에 비해 41가구가 줄었으며, 농가인구는 2003년 현재 7,92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94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97년 외환위기 당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해 일부 실업자들의 귀농현상으로 농가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2003년도의 농가 인구 감소현상은 군 승격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남으로써 농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전환한 결과로 분석된다.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4,122명, 여성은 3,806명으로 조사돼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농어업 총조사 자료와 비교해 보면 농가인구의 성비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2. 농업지원정책과 시설



수로

1) 수리시설, 농지정리

(1) 수리시설 현황

증평군에서는 가뭄에 대비,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 벼농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농업용수의 개발로 농업용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표 13. 수리시설 현황(2003)

(단위 : 개소)

저수지	양수장	집수암거	취입보
18	4	-	21

증평군, 통계연보, 2003.



증평읍 용강리 농지정리 현황

(2) 농지정리 현황

증평군은 토양정밀검정 결과를 토대로 추심경과 객토, 벗짚깎기, 깊이갈기, 석회 및 규산질 비료 공급 등을 실시해 지력의 증진 및 농지개량을 꾀하고 있다.

● ● 표 14. 농지정리 현황(2003)

(단위 : ha)

구분	총 면적			실적		잔면적
	계	가능	불가능	면적	비율(%)	
1998	1,234	1,024	210	928	90.6	96
1999	1,234	1,024	210	950	92.7	74
2000	1,234	1,024	210	950	92.7	74
2001	1,535	1,024	511	950	92.7	74
2002	1,535	1,024	511	950	92.7	74
2003	1,535	1,024	511	950	92.7	74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또한 증평군은 경지정리를 확대해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각종 농업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03년도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 총면적은 1,535ha이며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1,024ha로 나타났다.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을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실시한 실적은 950ha로 실

적률은 92.7%를 나타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정리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 농업용 기구 및 기계

현대의 농업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화가 필수적이다. 농업용지가 계속해서 조금씩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유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농기계의 도입·확산에 따른 농업생산성 향상의 결과였다.

●● 표 15. 농업용 기구 및 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연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동력방제기	양수기	탈곡기	건조기	파종기	관리기
1997	1,001	171	416	101	717	371	13	654	6	380
1998	1,000	178	414	120	745	479	19	633	5	369
1999	977	223	486	116	549	321	4	780	5	452
2000	971	263	460	114	744	425	8	742	8	435
2001	965	238	449	131	850	674	52	748	14	405
2002	1,091	329	644	147	857	688	52	770	17	589
2003	735	205	416	205	-	-	-	-	-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우리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화 및 시설자동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1997년 IMF에 따른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우리 나라 농업은 농업생산비의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교토의정서’ 발효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규범이 발효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증평군 농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비를 감소시켜 농업경영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증평군의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 경운기의 경우 보급이 완료된 단계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트랙터, 동력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등은 농업이 기계화·선진화되면서 보유대수가 점차 증가돼 가고 있다.



벼 수확용 콤바인

그러나 농업기계는 소량 다기종으로 사용일수가 짧고, 사용기간이 계절적으로 한정되며, 주로 농지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교통, 통신 시설이 미흡하고 이동이 어려워 고장시 수리가 다른 공산품에 비해 어려움이 많고, 또한 농번기에는 수리기술자와 부품이 부족해 1~2일간 농업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조일농기계수리센터

특히 신개발 농업기계의 경우 면 단위에 1~2대 정도가 보급돼 수리용 부품의 사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돼 농민들의 불만도 많이 발생했으나 농업기계 고장수리로 인한 농민 불만 해소와 농기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정부, 농기계 제조업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의 노력으로 농업기계 사후봉사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형 및 수입 농기계의 수리는 미흡하고, 농업기계 수리기술자의 대우와 소득이 좋지 않아 수리기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농기 집중수리에 대비해 충분한 수리부품을 확보하고, 적기 수리정비를 실현함으로써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리용 부품확보자금 및 수리용 장비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농업기계 수리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3) 농정관리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199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지정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규정된 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녹지지역 등이다. 특별시의 녹지지역(녹지대)은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농지가 집단화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 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중평군은 우수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지의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농지전용을 금하는 농업진흥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평군의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합해 2003년 기준으로 8,159필지이며, 총 면적은 1,332.3ha이다.

농업진흥지역은 1997년 이후 점차적으로 그 면적이 감소해 오다가 2003년 도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증평군이 군 승격 이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우수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농지전용을 금하는 농업진흥구역을 확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증평군이 629.3ha(47.5%)이며 도안면은 693ha(52.5%)이지만 경지 면적 대비로 살펴보면 도안면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증평읍에 비해 상당히 많다.

●● 표 16.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단위 : ha)

연별 및 지소별	합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1997	8,310	1,351.0	6,636	1,126.9	1,674	224.1
1998	8,310	1,351.0	6,636	1,126.9	1,674	224.1
1999	8,159	1,322.4	6,566	1,099.2	1,593	223.2
2000	8,159	1,322.4	6,485	1,099.2	1,674	223.2
2001	8,141	1,333.4	6,548	1,107.2	1,593	223.2
2002	6,228	1,120.3	5,432	1,013.1	796	107.2
2003	8,159	1,322.3	6,566	1,09.2	1,593	223
증 평	4,058	629.3	3,165	517.2	893	112
도 안	4,101	693.0	3,401	582.0	700	111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4) 양정 관리

양정관리는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급조절을 원활히 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국민 식량의 확보 및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양곡의 수매, 보관, 가공, 매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는 이중 곡가 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적자규모 확대, 누증에 따라 최근의 양정시책은 과중한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산지 쌀가격의 지지기반 확충을 유도해 가고 있으며 미곡 종합처리장의 산물수매 실시 및 쌀농업의 기계화 및 경쟁력 강화로 선진농업으로 구조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의 현황을 알아보면 정부양곡 보관의 많은 부분이 민간창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농협창고의 경우 1개 동만 설치돼 3개동인



증평농협 도안지소 양곡창고

민간 창고에 비해 보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증평군의 정부양곡 보관 능력은 1997년 13개 동의 8,184M/T에서 2003년의 3개 동의 2,278M/T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경작지 감소로 인한 양곡 생산의 감소와 정부의 추곡수매 급감에 의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 표 17.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현황

(단위 : m², M/T)

연별	합 계			농협창고			민간창고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동수	면적	보관능력
1997	12	4,331	8,184	6	1,818	3,484	6	2,162	4,077
1998	6	2,491	4,770	1	330	623	5	1,830	3,524
1999	6	2,491	4,770	1	330	623	5	1,830	3,524
2000	4	1,831	2,901	1	330	623	3	1,501	2,278
2001	5	554	3,524	1	100	623	4	454	2,901
2002	4	1,500	2,901	1	330	623	3	1,170	2,278
2003	3	354	2,278	1	100	623	2	254	1,655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5) 추곡 · 하곡 수매 실적



도안면 추곡수매 광경(2003)

하 · 추곡 수매는 정부에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사들임으로써 직접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더 나아가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농산물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만족을 목표로 한다.

증평군에는 밀이 생산되지 않고 보리 역시 소량 생산돼 하곡수매는 없으며, 양곡 수매는 전량 추곡, 즉 쌀 수매이다. 정부 추곡수매량의 급격한 감소는 농민의 소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매가격이 일반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농민들이 추곡수매를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증평군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고 있다.

증평군의 추곡수매실적을 보면 1997년 2,720톤이었던 추곡수매 물량이 2002년엔 1,495.4톤으로 급격히 줄었다. 벼의 등급을 보면 1등급 벼는 감소했으며 2등급 벼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2003년에 97톤이 특등벼로 분류됐으나 2002년도와 비교해보면

절반수준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에는 수매에 벼의 일반매입뿐만 아니라 종자도 매입됐다.

●● 표 18. 추곡수매실적

(단위 : kg)

연별	실적	등 급 별				종 류 별	
		특등	1등	2등	3등	일반매입	종자
1997	2,720,000	-	2,700,240	19,760	-	2,720,000	-
1998	2,291,480	-	2,241,640	47,080	2,760	2,291,480	-
1999	1,882,160	-	1,839,800	42,120	240	1,882,160	-
2000	1,831,760	-	1,636,480	180,680	14,600	1,831,760	-
2001	1,542,000	-	1,487,120	54,880	-	1,542,000	-
2002	1,495,400	180,360	1,219,640	88,360	7,040	1,465,920	29,480
2003	1,368,160	96,840	1,080,640	184,240	6,440	1,368,160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3. 농업생산

1) 식량작물의 생산현황

식량자원은 크게 쌀, 잡곡(조, 수수, 옥수수, 메밀), 콩류(콩, 팥, 녹두), 감자류(감자, 고구마)로 나눌 수 있다. <표 19>에서 살펴보면 쌀의 생산면적이 전체 식량작물 생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쌀의 생산량의 변화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현상은 증평군의 자연지리적 환경이 미곡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이며, 최적의 환경속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이를 상품화해 도내 및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쌀 및 식량자원의 생산량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쌀의 경우에는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증평군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식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국민들의 식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쌀의 소비량이 감소됐으며, 국가정책적으로 휴경지의 도입 등으로 쌀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잡곡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콩과 감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했다. 또한, 보리의 경우 2002년에 겉보리가 4ha에서 10kg이 생산됐으나 생산량이 미약한 실정이다.

●● 표 19. 식량작물 생산량(정곡)

(단위 : ha, M/T)

연 별	합 계		미곡		잡곡		콩류		감자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7	1,478	6,245	1,281	5,765	29	194	153	222	15	64
1998	1,510	6,758	1,270	5,994	69	259	156	218	15	287
1999	1,745	7,586	1,267	6,246	99	336	359	576	20	428
2000	1,746	7,587	1,267	6,246	100	337	359	576	20	428
2001	1,515	7,237	1,269	6,228	162	637	72	107	12	265
2002	1,430	6,864	1,199	5,887	185	652	33	40	13	285
2003	1,406	6,193	1,179	5,293	181	589	33	38	13	273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1) 잡곡류 생산현황

잡곡류의 생산량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곡 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옥수수로 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97년 대비 2003년에는 생산면적이 12.5배 증가했으며, 메밀의 경우에도 생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수수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만 점차 재배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2001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괴산군 장연면에서 생산되는 대학찰옥수수의 보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증평균은 괴산군에 인접돼 있어 일반옥수수보다 통이 가늘고(8~10줄) 당도가 높으며 껍질이 얇아 치아사이에 끼지 않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대학찰옥수수의 종자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재배하기가 용이하고 대학찰옥수수를 맛 본 소비자들의 선호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잡곡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재배면적이 넓은 옥수수가 생산량에서도 가장 많은 생산을 보였다. 2003년도 현재 잡곡류의 총생산량 590M/T 중 옥수수의 생산량이 530 M/T으로 전체 생산량의 89.8%를 차지했다.

조와 메밀의 경우에도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잡곡류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1997년 이후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다가 2003년도에 감소 추세로 반전됐다.

●● 표 20. 잡곡 종류별 생산면적

(단위 : ha)

연 별	합 계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1997	29	-	5	10	6	8
1998	69	-	5	50	6	8
1999	99	-	5	60	6	28

연 별	합 계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2000	100	1	5	60	6	28
2001	162	6	3	123	21	9
2002	185	6	3	125	22	29
2003	181	5	3	125	21	26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반면 수수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에 비해 생산량의 감소가 적어 수수재배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잡곡생산 효율성 면에서 살펴보면 2003년도 잡곡류 생산량 중 옥수수의 경우가 10a당 441kg이 생산돼 가장 효율성이 큰 작물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메밀과 조의 경우 각각 110, 100kg만이 생산돼 옥수수에 비해 수확량의 큰 차이를 보인다.

● ● 표 21. 잡곡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 별	합 계	조		수 수		옥수수		메 밀		기 타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생산량	
			kg /10a		kg /10a		kg /10a		kg /10a		kg /10a
1997	194	-	-	7	147	170	340	7	127	10	130
1998	259	-	-	7	147	235	470	7	127	10	130
1999	336	-	-	8	162	284	473	7	118	37	132
2000	337	1	125	8	162	284	473	7	118	37	132
2001	637	7	127	4	170	588	480	26	125	12	132
2002	652	7	120	4	160	575	460	26	120	40	140
2003	590	6	100	4	140	530	441	18	110	33	120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콩류의 생산현황

콩류의 총생산면적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크게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부터는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콩의 생산이 옥수수의 생산으로 대체됐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콩류의 경우 생산면적의 대부분을 콩이 차지하고 있으며, 녹두의 경우 생산 면적이 적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다.

● ● 표 22. 콩류 종류별 생산면적

(단위 : ha)

연 별	합 계	콩	팥	녹두	기타
1997	153	130	23	-	-
1998	156	130	23	1	2
1999	359	330	23	1	5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연 별	합 계	콩	팥	녹두	기타
2000	359	330	23	1	5
2001	72	49	19	1	3
2002	33	8	11	3	11
2003	33	8	11	3	11

콩류의 경우 2000년을 정점으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하락해 2003년에는 재배면적이 2000년 대비 9%의 재배면적만을 사용하고 있다. 팥의 경우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23. 콩류 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별	합계	콩		팥		녹두		기타	
			kg /10a		kg /10a		kg /10a		kg /10a
1997	222	194	149	28	120	-	-	-	-
1998	218	189	145	26	114	1	109	2	115
1999	576	541	164	29	127	1	108	5	109
2000	576	541	164	29	127	1	108	5	109
2001	107	77	155	26	135	1	110	3	111
2002	40	9	105	14	120	3	100	14	120
2003	38	9	105	14	120	3	95	12	103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생산량을 살펴보면 콩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생산량이 많았지만 콩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면서 2003년에는 9kg만이 생산돼 팥의 생산이 오히려 더 많았다. 또한 콩류의 전체 생산량을 보면 1997년 222kg에서 2003년엔 40kg으로 1997년 수준의 18%밖에 생산되지 않았다. 단위당 생산량의 경우에도 1997년에는 콩의 단위당 생산량이 팥에 비해 29kg이나 높지만 2003년엔 팥과 녹두의 단위당 생산량이 콩의 생산량보다 15kg이나 높다.



증평읍 울리 감자수확 광경

(3) 감자류의 생산현황

감자류의 종류로는 고구마와 감자를 들 수 있다. 이중 감자의 생산면적은 변함 없으며, 고구마의 경우에는 1999년과 2000년에 10ha로 증가했다가 2001년과 2002년에 재배면적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2003년도에는 전년수준과 같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 표 24. 감자류 종류별 생산면적

(단위 : ha)

연 별	합 계	고 구 마	감 자
1997	15	5	10
1998	15	5	10
1999	20	10	10
2000	20	10	10
2001	12	2	10
2002	13	3	10
2003	13	3	10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감자류의 경우 생서와 정곡으로 분류하는데 증평군의 경우 감자류의 대부분이 생서라고 할 수 있다.

●● 표 25. 감자류 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 별	합 계		고 구 마				감 자			
	생서	정곡	생서	정곡	kg/10a		생서	정곡	kg/10a	
					생서	정곡			생서	정곡
1997	268	64	98	30	1,956	609	170	34	1,702	340
1998	287	68	99	30	1,975	611	188	37	1,877	375
1999	428	-	206	-	2,060	-	222	-	2,215	-
2000	428	-	206	-	2,060	-	222	-	2,215	-
2001	265	-	45	-	450	-	220	-	2,220	-
2002	285	-	65	-	650	-	220	-	2,220	-
2003	273	-	53	-	530	-	220	-	2,220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감자류의 전체 생산량도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들과 비슷하게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고구마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구마의 경우 2000년 206kg이던 생산량이 2002년에는 53kg만이 생산됐다. 감자의 경우에는 생산면적의 변화없이 생산량의 변화도 평이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1997년보다 2003년의 감자 생산량이 50kg 증가해 단위당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단위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고구마가 감자에 비해 단위당 생산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채소류 작물의 생산현황

채소의 경우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및 조미채소로 구분된다. 과채류에는 오이, 호박, 참외, 토마토, 가지, 딸기 등이 있으며 엽채류에는 배추, 양상추,

상추, 시금치, 양파, 마늘, 고추 등이 있고, 근채류의 경우에는 무, 당근 등이 있고 조미채소로는 고추, 파, 마늘 등이 있다.

증평균의 경우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보다 조미·채소의 재배면적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미채소류의 경우 1999년 재배면적이 232ha였으나 그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증평균의 채소류 총재배면적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무, 당근과 같은 근채류 채소의 재배면적은 2003년에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채소류 종류별 재배면적

(단위 : ha)

연 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
1997	26	56	24	178
1998	24	44	26	173
1999	13	62	26	232
2000	22	69	31	127
2001	8	16	12	143
2002	11,3	21,5	14	151
2003	9	19	16	134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도안면 석곡리 하우스 채소재배

채소류 생산량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가 2002년에 2001년보다 잠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현상은 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근채류의 경우에는 2001년도 생산량이 급감한 이후 2002년부터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엽채류의 경우에는 2000년의 4,361kg에서 2001년의 693kg으로 크게 감소했다.

단위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과채류가 10a당 10,250kg으로 가장 생산량이 많았으며, 조미·채소는 3,930kg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가장 적었다. 과채류의 경우 채소류 생산량 중에 생산성이 가장 좋았다.

● ● 표 27. 채소류 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 별	과 채 류		엽 채 류		근 채 류		조미 · 채소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kg /10a		kg /10a		kg /10a		kg /10a
1997	579	-	2,500	-	711	-	921	-
1998	531	14,496	2,317	15,214	1,003	6,447	897	4,038
1999	270	14,260	3,330	13,932	840	5,471	1,130	3,679
2000	393	10,451	4,361	13,458	910	5,091	1,225	3,790
2001	171	11,197	693	7,800	407	5,521	723	3,624
2002	225	10,360	747	10,400	792	8,605	844	4,138
2003	176	10,250	700	9,250	915	8,500	803	3,930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3) 특용작물의 생산현황

증평균의 특용작물로는 참깨, 들깨, 땅콩, 인삼을 들 수 있다. 증평균의 경지 면적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상품인 특용작물의 재배는 농가수익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특용작물의 생산면적을 살펴보면 2000년을 정점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증평균의 경우 인삼의 재배면적이 제일 많았으며, 땅콩의 경우 재배 면적이 상당히 적다.

그러나 인삼의 재배면적을 보면 1999년까지는 재배면적이 크지 않았고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에 급격히 인삼의 재배면적이 커졌으나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용작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인삼이 다른 특용작물들에 비해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 참깨, 들깨, 땅콩의 경우 2000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것은 특용작물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단위당 생산량을 보면 인삼이 52kg으로 가장 높았으며, 참깨는 30kg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가장 적었다. 특용작물의 경우 채소류에 비해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며 재배기간도 길고 생산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28. 특용작물 종류별 재배면적

(단위 : ha)

연 별	참깨	들깨	땅콩	인삼
1997	28	21	4	15
1998	28	26	4	6
1999	55	69	6	7
2000	30	28	4	81
2001	29	31	5	79
2002	30	26	3	61
2003	30	26	3	52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이와 같이 땅콩, 참깨, 들깨의 경우에는 경작지 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종류의 특용작물의 생산은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평균의 특산물인 인삼의 경우는 2000년 경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생산량이 급증한 이래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10a 당 생산량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삼재배기술의 향상이 인삼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표 29. 특용작물 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 별	참 깨		들 깨		땅 콩		인 삼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kg /10a		kg /10a		kg /10a		kg /10a
1997	19	65	22	106	6	165	72	487
1998	17	57	15	61	8	216	27	461
1999	62	34	43	62	13	212	28	462
2000	17	58	16	58	7	194	462	570
2001	17	60	19	60	10	200	282	550
2002	13	48	20	70	8	240	335	550
2003	15	50	18	65	6	190	286	530

■ 중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중평의 특산물 중 하나인 인삼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인삼산업은 IMF로 인한 소비위축 및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의 경제여건 악화로 수출이 감소하는 실정이며, 가격이 싼 중국산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삼류의 수출은 홍삼을 중심으로 홍콩,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전체 수출액의 83%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결과, 국제적으로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해외 시장에서 인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 표 30. 인삼제품 시장현황

(단위 : 100 달러)

년 도	1998		1999		2000		2001 (상반기)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규 모	820,065	7,444	843,582	9,153	789,863	32,438	256,242	24,441
증 감 (%)			2.9	23	-6.4	354	-22.1	80.8

■ 중평균, 『중평균장기발전종합개발계획』, 2004.

4) 과수작물의 생산현황

증평군의 경우 충청북도 최대의 소비지역인 청주시에 인접해 있고, 외부로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최근 들어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재배 면적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질적인 재배 면적은 증평군의 경지면적을 고려할 때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일 많은 재배 면적을 보이는 과실은 사과이며, 1997년 이후 재배 면적이 계속 줄어들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의 경우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자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재배가 중단됐다.

과실류 생산량의 경우 1997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1년부터 증가해 2003년에는 1,148M/T으로 급격히 증대됐다. 이러한 영향은 과실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144M/T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201M/T이나 감소 했는데 이는 재배면적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위당 생산량을 보면 배가 10a당 2,400kg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으며, 복숭아가 10a당 1,800kg으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였다.



증평읍 남차리 복숭아
봉지 싸기

●● 표 31. 과실류 종류별 재배면적

(단위 : ha)

연 별	합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1997	36.3	24.9	4.7	3.1	2.8	0.8
1998	35.1	23.4	5.9	3.3	2.3	0.2
1999	36.8	18.8	13.2	2.2	2.4	0.2
2000	36.4	18.7	13.7	2.4	1.6	-
2001	39.7	18.9	17.0	1.2	2.6	-
2002	46.2	23.6	17.0	3.0	2.6	-
2003	54.6	36.0	8.0	8.0	2.6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배의 단위당 생산량인데 2003년도에 10a당 생산량은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2000년도의 10a 생산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배재배기술의 향상 및 영농

교육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배 생산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 표 32. 과실류 종류별 생산량

(단위 : kg, M/T)

연 별	합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생 산 량	
			kg /10a		kg /10a		kg /10a		kg /10a		kg /10a
1997	811	592	2,376	114	2,446	52	1,680	45	1,614	8	1,000
1998	692	484	2,210	136	2,375	46	1,385	25	1,061	1	500
1999	726	380	2,022	285	1,649	29	1,350	31	1,020	1	700
2000	707	377	1,955	280	1,647	25	955	24.5	1,531	-	-
2001	895	403	2,188	421	2,490	21	1,750	50	1,920	-	-
2002	1,003	500	2,180	401	2,400	52	1,750	50	1,920	-	-
2003	1,148	756	2,180	200	2,500	144	1,800	48	1,900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4. 증평군의 특산물

1) 새로미쌀



증평농협 새로미쌀

새로미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알맞은 산수가 어우러진 장뜰이라는 뜻으로 비옥한 토질에서 부모 형제가 밤낮으로 땀과 정성을 들여 가꾸고 수확한 벼를 엄선해 수매, 정선, 보관, 도정 등의 과정을 최선설비를 도입, 증평농협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쌀로서 1999년 초 미질 및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자 증평농협 및 관내 조합원, 주부, 학생 그리고 여러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공모해 ‘새로미’라고 명명했다.

1999년 3월에 상표등록 출원했고, 그 해 5월에 상표로 등록(등록번호 제0470228)했으며, 1999년 7월에는 포장용 포대 의장등록을 획득(등록번호 제0248412호)했다. 새로미 쌀은 연간매출액이 9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서울 지역에서 호평이 있는 쌀이며, 2001년도 전국 쌀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해 최고의 양질미로 인정받고 있다.

2) 인삼

인삼은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두릅 나무과의 여러해살이로 그 뿌리의 형태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인삼이라 부른다. 특히 증평인삼은 중산간지에서

재배되고 있어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함량이 많아 약효가 뛰어나고 불로·장생·익기(益氣)·경신(輕身)의 명약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이러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인삼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 증평지역 고유의 특화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인삼레스토랑, 인삼전시 및 약초로 쓰이는 식물들을 이용해 인삼 건강동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인삼전시 및 제품 판매, 건물지하에 인삼점질사우나 설치, 인삼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건강관련정보가 담긴 패넌 및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삼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북인삼농업협동조합
생산 인삼

3) 사과

증평사과는 중산간지에서 재배해 일조량이 많아 주성분인 탄수화물과 비타민C, 칼륨·나트륨·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서 위액분비를 활발하게 해 소화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진정작용을 해 불면증에 좋고 빈혈·두통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청주시가 인접해 다른 지역에 비해 판매의 이점이 있다. 사과는 증평군 과실류 재배 면적과 생산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삼겹살

증평군에서는 37사단과 67사단이 주둔하고 있어, 예로부터 군부대 잔반으로 돼지사육을 시작해 육질이 뛰어나고 오랜기간 돼지고기 요리가 개발됐기 때문에 독특한 부드러운 육질을 맛볼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사육호수는 소 사육농가보다 적지만 사육마릿수는 소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화에 의한 사육농가들의 전문적인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돼지의 사육이 많아 돼지의 부속물인 막창 요리 역시 발전했다. 막창에 찹쌀, 깻잎, 당면 등 갖은 재료와 양념으로 만든 막창순대는 돼지 냄새가 나지 않고 담백해 인근지역에서 이를 먹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유명해 또 하나의 특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증평문화제 삼겹살, 김치축제

5) 질흙소담미



증평농협 질흙소담미 쌀

증평쌀은 맑고 깨끗한 농업 용수가 풍부한 넓은 들에서 충분한 햇볕을 받고 재배되어 벼알이 튼실하고, 알차게 여물어 밥이 차지고 윤기가 있다. 특히 농약 및 비료사용은 농업 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양만 살포함으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고품질 양질 쌀이다.

태백산맥 줄기에 자리잡은 질벌들은 지난 70년대 경지정리가 돼 벼농사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벼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토질이 질참흙으로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의 저장능력, 각종 유기물이 풍부해 질 높은 쌀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특히 증평쌀전업농협의회에서는 90여명의 회원이 좋은 쌀 생산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증평쌀의 명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체에 유익한 참숯과 목초액을 이용한 새로운 농법을 적용, 2002년 20여 농가가 참여하여 성공리에 시험재배에 성공했으며, 2004년부터는 10ha 논에 30여 농가가 참숯 농업으로 쌀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다.

참숯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어린아이 출생 시 금줄에 숯덩이를 넣는 것은 음이온을 이용한 부패성 미생물을 막고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며, 간장이나 된장을 담글 때도 숯을 넣어 발효를 유도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질벌들의 지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질흙에서 찰지게 재배된 쌀을 대외적 신임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를 공모한 바, 관심 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증평을 상징하는 질벌들에서 생산되므로, 질흙소담미라고 명칭을 확정, 특히 출원 중에 있다.

또한 전국 쌀 품평회에 증평 쌀을 출품해 금상을 받아 명실공히 증평쌀의 명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증평농협종합미곡처리장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전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쌀이다.

증평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최신식 시설로 소비자가 즐겨 찾는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춘 수준 높은 도정공장이다.

6) 홍삼 청국장 분말

특허출원(4-2003-031156-4)된 홍삼 청국장 분말은 재래식 방법으로 메주를 띄워 자연 건조시킨 후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생산된 홍삼분말을 첨가해 만든 것으로 고단백질 함유량이 약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보감에 의하면 청국장은 고혈압, 당뇨, 항암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죽리 토종식품(대표 공병림)은 여기에 홍삼분말을 넣어 약효의 상승효과를 높이고 있다.



죽리 토종 된장
홍삼 청국장 분말

7) 한과

한과를 말해주는 문헌에 의하면 고려 충선왕 때 세자가 원나라에 가서 향연을 베푸는데 고려에서 잘 만든 한과를 대접하니 그 맛에 깜짝 놀라 칭찬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한과를 우리나라 과자의 으뜸으로 친다. 경사 때나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며, 혼인 시에 신부 집에서는 신랑 집으로 가져가는 이바지에 한과를 담아 보내면 신랑 집에서는 그것으로 잔치를 해 사돈집의 숨씨를 자랑했다.

또한 신랑 집에서는 신부가 삼 일만에 친정으로 가는 신행 때에 신부 집에 지지 않기 위해 후행 편에 한과를 보냈다.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제조해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고소함이 더해 현대인의 입맛에도 잘 맞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자일 뿐만 아니라 제수용품으로도 많이 쓰이며 우리고유의 향미를 느끼게 하는 증평의 특산물로 (주)민속한식품(대표 신상철)에서 생산된다.



(주)민속한식품, 인삼한과 ·
인삼고추장

5. 임업

1) 면적

(1) 소유별 임야 면적

중평균의 임야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7년 4,199ha에서 1999년 4,194ha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는 4,200ha로 증가했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3.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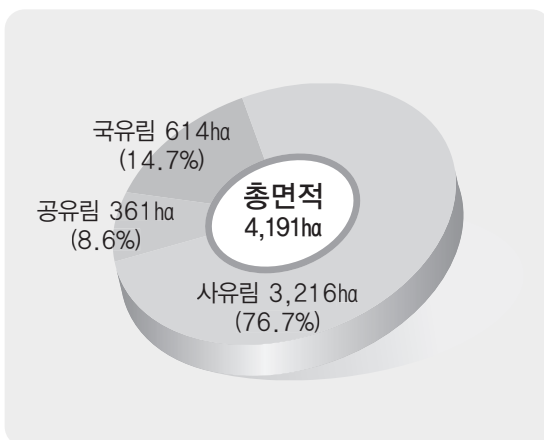
연 별	합 계	국 유 림			공 유 림			사 유 림
		소 계	산림청소관	타부처소관	소 계	도유림	군유림	
1997	4,199	615	499	116	361	-	361	3,223
1998	4,198	614	498	116	361	-	361	3,223
1999	4,194	614	498	116	361	-	361	3,219
2000	4,200	614	498	116	361	-	361	3,225
2001	4,199	614	498	116	361	-	361	3,224
2002	4,198	614	498	116	361	-	361	3,223
2003	4,191	614	498	116	361	-	361	3,216

□ 중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중평균의 경우 국유림이나 공유림에 비해 사유림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 소관의 산림이 많으며, 공유림의 경우 군유림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도유림은 없다.

2003년 전체 임야는 4,191ha로 1997년 4,199ha보다 8ha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유림은 산림청 및 타 부처 소관 임야를 모두 합쳐 614ha로 4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평균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은 361ha로 전체 임야면적의 2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경우를 보면, 2003년에 3,216ha로 전체 임야면적의 76.7%를 차지하고 있어 중평균 임야의 대부분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의 면적 변화를 연도별로 보면 밭과 같은 농지개간으로 임야면적이 감소했거나 조림 등으로 임야면적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 소폭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유림과 공유림의 경우에는 연도별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 소유별 임야면적

(2) 임상별 임야 면적

중평지역은 산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개간되고 않은 임야가 많아 개발할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산림을 잘 관리해 숲이 양호하게 보존돼 있는 편이다.

● ● 표 34. 임상별 산림면적

(단위 : ha)

연 도	합 계	입 목 지					무 입 목 지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계	비입목지	황폐지	개간지	제지
1998	4,198	4,124	2,075	929	1,120	-	74	52	-	-	22
1999	4,194	4,112	2,089	912	1,111	-	82	82	-	-	-
2000	4,200	4,109	2,116	895	1,098	-	91	91	-	-	-
2001	4,199	4,105	2,123	896	1,086	-	94	71	1	-	22
2002	4,198	4,084	2,122	898	1,064	-	114	114	-	-	-
2003	4,191	4,129	2,413	661	1,055	-	62	-	-	-	62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중평군의 산림을 임상별로 파악해 보면 죽림은 없고, 2003년 현재 침엽수림이 2,075ha로 57.5%를 차지하고 있고, 혼효림이 1,055ha로 25.2%를, 활엽수림이 661ha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3) 임상별 임목 축적

산림면적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각 임상별로 임목축적은 상당히 진척됐다. 1997년 213,404ha였던 임목축적이 2003년에는 304,551ha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2003년 현재 임상별 임목축적 구성비를 보면 침엽수림이 60.0%, 혼효림이 26.5%, 활엽수림이 13.5%를 차지하고 있다.

● ● 표 35. 임상별 임목축적

(단위 : m³)

연 도	합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비 중		비 중		비 중		비 중
1998	213,404	100.0	107,635	50.4	47,702	22.4	58,067	27.2
1999	223,229	100.0	113,325	50.8	49,223	22.1	60,681	27.2
2000	206,570	100.0	103,547	50.1	45,570	22.1	57,453	27.8
2001	242,584	100.0	124,912	51.5	52,284	21.6	65,388	27.0
2002	252,561	100.0	130,980	51.9	54,568	21.6	67,013	26.5
2003	304,551	100.0	182,706	60.0	41,038	13.5	80,807	26.5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조림 및 생산

(1) 조림

중평균의 조림 면적은 2000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본수 역시 2000년의 130.5천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조림은 장기수, 유실수, 속성수, 대묘수, 조정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중평균의 경우 장기수, 유실수, 대묘수만이 존재한다.

●● 표 36. 조림 면적과 본수

(단위 : ha, 천본)

연 도	합 계		장 기 수		유 실 수		대 묘 수		기 타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1997	37	105.3	34	102	1	0.3	2	3	1	0.3
1998	23	58.3	20	55	1	0.3	2	3	-	-
1999	29	79.8	25	75	1	0.3	3	4.5	-	-
2000	45	130.5	42	126	1	0.3	3	4.5	-	-
2001	23	64.5	20	59.5	-	-	3	5	-	-
2002	21	55.9	17	51	1	0.4	3	4.5	-	-
2003	28	74.5	25	70	-	-	3	4.5	-	-
중평균	26.8	70.9	23.8	66.4	-	-	3	4.5	-	-
도안면	1.2	3.6	1.2	3.6	-	-	-	-	-	-

■ 중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장기수의 경우 조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실수는 2000년까지 1ha가 존재했으나 2001년에 없어진 후 2002년에 복구됐다. 대묘수는 1999년의 3ha가 변동없이 심어져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중평균의 경우 조림면적이 26.8ha로 나타나 중평균 조림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장기수에 대한 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안면의 경우에는 1.2ha로 조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안면 노암1리 느타리버섯

(2) 임산물 생산

중평균은 다른 군에 비해 산림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은 그리 활발하지 않다. 주된 임산물은 종실이며, 산나물, 용재 등이 생산되고 있다. 종실은 밤, 호두, 대추, 은행 등과 같은 나무 열매를 뜻하며 약용으로는 약초, 산수유 등이 있고 버섯종류에는 표고, 목이, 느타리 등이 있다. 용재는 목재를 뜻한다.

● ● 표 37. 임산물 생산량

연 별	용재(㎡)	연료(M/T)	증실(kg)	버섯(kg)	산나물(kg)
1997	1,619	274	10,053	-	4,990
1998	967	158	5,304	-	12,589
1999	1,426	130	3,720	-	6,000
2000	1,924	130	129,000	-	-
2001	1,003	-	16,030	4,000	7,900
2002	1,774	-	16,780	-	5,100
2003	2,140	-	15,520	1,050	5,400

3) 산림피해 및 사방사업

증평군은 산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 건수와 피해액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편이다. 오직 1998년에 도벌에 의한 약간의 피해와 2001년의 산불에 의한 피해만이 접수됐으며, 도벌에 의한 피해보다 산불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방사업은 2002년에 1.2ha의 면적에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모두 산지를 중심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



푸른산 가꾸기 식목행사 (1965)

● ● 표 38. 산림피해현황

(단위 : ha, 천원)

연도	합 계			도 벌			산 불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건수	면적	피해액
1997	-	-	-	-	-	-	-	-	-
1998	1	0.00	2	1	0.00	2	-	-	-
1999	-	-	-	-	-	-	-	-	-
2000	-	-	-	-	-	-	-	-	-
2001	1	0.30	800	-	-	-	1	0.30	800
2002	-	-	-	-	-	-	-	-	-
2003	-	-	-	-	-	-	-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표 39. 지방산업 현황(2003)

(단위 : 개소)

연 도	합 계			실 적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면적	식재본수	공사비
1997	-	-	-	-	-	-
1998	-	-	-	-	-	-
1999	-	-	-	-	-	-
2000	-	-	-	-	-	-
2001	-	-	-	-	-	-
2002	1,2	5,200	63,544	1,2	5,200	63,544
2003	-	-	-	-	-	-

제2절

제2절 축산업

1. 농가 · 가축사육

전통적인 농업으로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웠던 농가에서 많이 택하는 것이 축산업이었다. 증평군의 경우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상당한 정도의 축산 농가가 형성돼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농가의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최근 농촌경제의 위기와 함께 우리 나라의 농촌 전역에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역시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증평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축산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 결과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축사육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돈육가공제품의 수출에 주력하는 몇몇 축산물 가공업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도안면 송정리 박장선 축사

2. 가축사육현황

1) 소

증평균의 경우 한육우와 젖소를 같이 사육하는데 젖소보다 한육우를 더 많이 사육하고 있으나 한육우의 경우 사육호수와 사육 마릿수 모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젖소의 경우 한육우보다 사육호수는 적지만 전업으로 사육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사육호수에 비해 사육 마릿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육우의 경우 사육호수 감소가 사육마릿수 감소로 이어졌지만, 젖소의 경우 사육호수는 감소했지만 사육 가구가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돼지

양돈업은 증평균의 축산업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에 나타나듯이 돼지의 사육 마릿수는 매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에 비해 사육호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돼지 사육 마릿수는 증가해 돼지의 사육에서도 대규모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안면 화성2리 연길희 돈사

●● 표 40. 소 · 돼지 사육 현황 (단위 : 호, 마리)

연 도	한 육 우		젖 소		돼 지	
	사육호수	마릿수	사육호수	마릿수	사육호수	마릿수
1997	666	4,489	27	790	56	17,102
1998	569	3,668	25	875	53	27,833
1999	487	3,219	19	721	61	32,833
2000	432	2,793	23	1,015	64	38,574
2001	358	1,959	23	989	57	40,291
2002	280	1,708	36	1,184	49	37,097
2003	253	1,913	15	923	38	33,088
증평균	153	1,232	2	148	34	14,758
도안면	100	681	13	775	4	18,330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3) 기타 가축

소, 돼지가 아닌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살펴보면 개의 경우 가장 많은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의 경우는 사육농가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반면 닭의 경우 2002년에 사육농가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03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과 사슴의 경우 사육농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토끼, 오리, 거위, 칠면조, 마필의 경우 사육농가가 극히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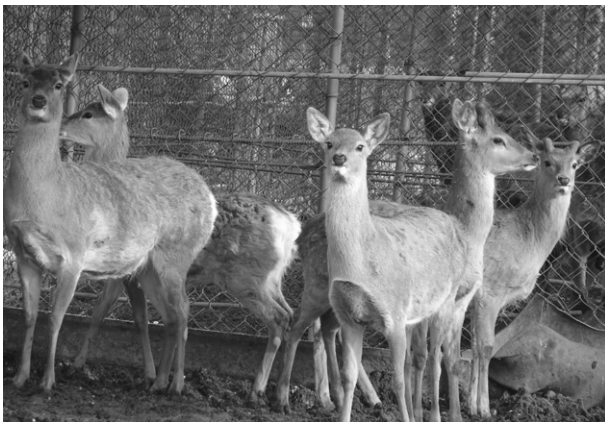
●● 표 41. 기타 가축 사육 호수 현황

(단위 : 호)

연도	닭	마필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1997	85	-	133	129	36	950	14	2	9
1998	68	-	96	129	28	791	18	3	10
1999	116	-	164	136	33	737	33	5	12
2000	96	-	175	139	49	732	41	5	11
2001	85	-	154	120	32	757	23	5	9
2002	126	1	142	118	34	608	13	2	4
2003	89	1	78	90	37	529	15	4	16
중평균	53	1	43	20	31	263	11	3	15
도안면	36	-	35	70	6	266	4	1	1

■ 중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사육 마릿수를 살펴보면 개의 경우 사육호수는 줄었지만 사육 마릿수는 오히려 늘어나 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닭의 경우에는 사육농가의 증가가 2002년의 닭 사육 마릿수 증가로 나타났다.



도안면 도당리 연인택 사슴농장

산양이나 사슴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가축의 경우 사육농가수의 감소가 사육 마릿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토끼는 사육농가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 마릿수는 줄어 가축의 대규모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의 경우 사육농가수는 줄었지만 사육 마릿수는 2002년이 2001년에 비해 아주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사육의 탄력성이 모든 가축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리의 사육농가 및 사육 마릿수를 지역별로 보면 2003년 현재 중평읍의 경우 오리농가는 11곳이고, 도안면은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리스육 마릿수를 보면 중평읍은 110마리에 불과한 반면 도안읍은 6,044마리나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평읍은 오리스육농가가 소규모 자가소비형태의 사육을 많이 하고 도안읍은 대규모 기업형 오리스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표 42. 기타 가축 사육 현황

(단위 : 마리)

연도	닭	마필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1997	191,533	-	1,362	731	288	3,384	177	6	17
1998	191,244	-	1,019	613	958	2,174	296	8	34
1999	236,119	-	1,331	687	1,165	2,401	731	12	26
2000	173,820	-	1,714	616	2,047	3,171	10,863	17	27
2001	206,452	-	1,160	520	343	3,336	203	11	25
2002	367,588	10	1,028	523	258	4,410	7,174	13	8
2003	615,616	10	604	404	323	4,653	6,154	14	58
증평균	217,433	10	369	120	296	3,716	110	13	54
도안면	398,183	-	235	284	27	937	6,044	1	4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가구당 사육 마릿수를 살펴보면 닭과 오리의 경우 가축 사육에 있어 초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가 많으며, 사슴과 산양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가구당 사육 마릿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개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도 많지만 사육 저변이 넓어 가구당 사육 마릿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닭과 개의 가구당 사육 마릿수를 살펴보면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오리의 경우 가구당 사육 마릿수가 2001년에 비해 2002년이 64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오리의 사육 마릿수의 변화폭이 큰 것은 조류독감 등의 전염병의 여파로 사육 마릿수가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안면 광덕1리 연장희 양계장

● ● 표 43. 가구당 기타 가축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연도	닭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칠면조	거위
1997	2253.3	10.2	5.7	8.0	3.6	12.6	3.0	1.9
1998	2812.4	10.6	4.8	34.2	2.8	16.4	2.7	3.4
1999	2035.5	8.1	5.1	35.3	3.3	22.2	2.4	2.2
2000	1810.6	9.8	4.4	41.8	4.3	265.0	3.4	2.5
2001	2428.9	7.5	4.3	10.7	4.4	8.8	2.2	2.8
2002	2917.4	7.2	4.4	7.6	7.3	551.9	6.5	2.0
2003	6917.0	7.7	4.5	8.7	8.8	410.3	3.5	3.6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도안면 은행정리
김문희 양봉장

4) 양봉업

양봉업의 경우 사육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육 벌통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가구당 마리수도 1997년의 13.4통에서 2003년의 102.5통으로 급격히 상승해 양봉업에서도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4. 꿀벌사육현황

(단위 : 호, 마리)

연 별	사육호수	벌통수	가구당 마리수
1997	28	376	13.4
1998	28	389	13.9
1999	34	668	19.7
2000	34	835	24.6
2001	33	1,968	59.6
2002	37	2,212	59.8
2003	37	3,793	102.5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5) 축산업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현황

증평균의 축산업과 관련된 업체수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55개 업체였는데 2003년도에는 81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증평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7개소로 95.1%를 차지하고 도안면이 4개소로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5. 축산물위생 관계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별	합계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판매업				
					소계	식육 판매업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2001	55	1	-	-	54	43	1	8	2
2002	65	1	-	3	61	49	1	8	3
2003	81	1	2	3	75	63	1	9	2
증평균	77	1	2	1	73	61	1	9	2
도안면	4	-	-	2	2	2	-	-	-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이를 세분해 보면 도축업의 경우 1개소, 축산물 가공업 2개소, 축산물 운반업 3개소로 변동이 없으며, 축산물 판매업의 경우에는 2001년 54개에서 2003년

75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판매업의 대부분은 식육판매업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 판매업 등은 변화추세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축위생 및 가축개량

1) 가축위생

최근 몇 년간 가축에게서 유행성 질병 등이 많이 발생해 많은 가축들이 강제 도축되거나 판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가축의 위생문제가 가축 사육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전염병은 축산에 치명적이므로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증평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행정기관들과 축산 단체들은 많은 홍보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탄저·기종저의 경우 접종수는 줄었지만 꾸준히 접종되고 있으며, 광견병의 경우에도 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 일본뇌염과 전염성 위장염, 뉴캐슬병 2001년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증평읍 연탄리 구제역 방역

●● 표 46.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적

(단위: 마리)

연도	탄저 기종저	소전염성 비기관염	돼지 일본뇌염	돼지전염 성위장염	뉴캐슬병	광견병	소유행열	소아까 바네병	기타
1997	2,922	-	-	-	-	1,620	-	-	21,720
1998	2,000	-	-	-	-	1,010	-	-	21,105
1999	1,000	-	-	-	-	800	-	-	102,994
2000	800	-	-	-	-	1,420	-	-	95,099
2001	600	600	9,000	12,000	949,000	1,600	1,100	390	147,200
2002	594	498	11,600	13,300	530,000	1,384	979	391	2,600
2003	595	400	14,010	15,000	789,800	1,480	794	399	156,042

2) 직업별 수의사 현황

증평군의 가축 치료는 1997년 이후 4명의 공수의에 의존해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1999년에 3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1년에 공수의가 4명으로 증가했으며, 가축병원도 개업해 증평군의 가축 치료가 용이하게 됐다.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 ● 표 47. 직업별 수의사 분포

(단위 : 명)

연 도	계	행정	연구	공수의	개업수의	기타
1997	4	-	-	4	-	-
1998	4	-	-	4	-	-
1999	3	-	-	3	-	-
2000	3	-	-	3	-	-
2001	5	-	-	4	1	-
2002	5	-	-	4	1	-
2003	7	-	-	4	-	3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증평읍 우주동물병원
가축진료 광경

그러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실적과 가축사육 마릿수의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증평군의 수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경우 이로 인한 축산업 관련 농가들의 피해는 점차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가축전염병의 경우 축산에 치명적인 것으로써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예방을 철저히 하려면 보다 전문적인 수의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염병 발병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수의사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고, 우수 종자를 확보해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축의 인공수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수의사의 확보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4. 도축현황

1) 소 도축현황

소의 도축 마릿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소고기 수요의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 의한 수요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생체량을 기준으로 한 도축실적도 도축 마릿수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육량의 경우에도 도축 마릿수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다.



증평도축장 소도축 광경

● ● 표 48. 소·돼지 도축현황

(단위 : 마리, kg)

연도	소			돼지		
	마릿수	생체량	지육량	마릿수	생체량	지육량
1997	5,599	2,602,778	1,431,520	112,086	9,863,618	6,904,530
1998	6,552	2,727,800	1,500,290	110,440	9,719,892	6,803,920
1999	5,813	2,712,402	1,491,820	89,053	7,809,834	5,466,880
2000	5,048	2,443,604	1,319,540	95,467	8,392,701	5,874,890
2001	4,068	2,244,314	1,120,080	80,567	7,888,298	5,521,810
2002	2,526	1,359,113	665,965	101,535	8,916,912	6,241,830
2003	1,928	1,093,051	633,970	132,764	11,692,052	9,353,641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돼지 도축현황

돼지 도축 마릿수는 소 도축 마릿수와 같이 2001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2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체량과 지육량도 도축마릿수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돼지의 도축 마릿수가 2002년에 증가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고기 소비를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제3절 증평의 제조업

제3절

1. 제조업의 조건

1) 재정지출

공업재의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산된 공업재를 흡수할 수 있는 투자나 소비 등 수요의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공업 생산에 수요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수요가 부족하기 쉬운 공업발달의 초기나 경기침체시 재정지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증평군은 인구 증가에 따라 소비수요도 증가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투자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증평군 당국은 공업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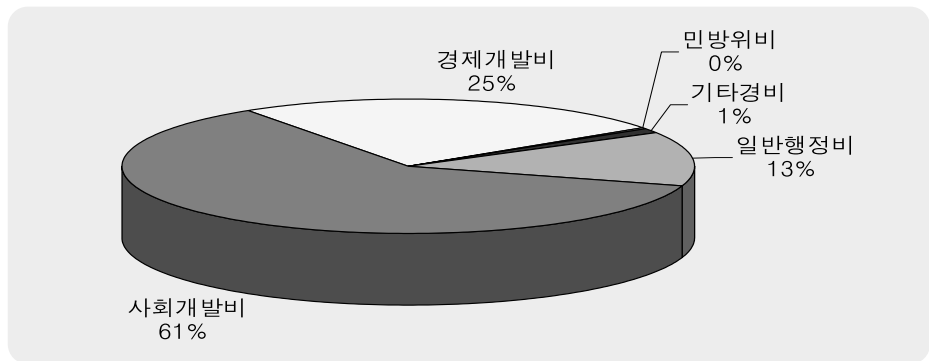


증평읍 용강리 코스모텍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꾸준히 증가했고, 산업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의 지출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비 지출은 산업 수요를 진작해 중평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지출은 궁극적으로 중평지역 생활수준의 제고를 목표로 하면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자칫 나타날 수 있는 생활수준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 ● 표 49. 일반회계 세출결산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전력 · 수송문제

제조업 전력사용량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제조업 전력 업종별 전력 사용량을 살펴보면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고용이나 생산량 등 여러 면에서 중평의 제조업을 대표하고 있다.

● ● 표 50. 제조업 업종별 전력사용량

(단위 : MWh)

연 도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기계 장비제조업	기타 제조업	계
1997	10,598	14,274	3,253	44,570	72,695
1998	10,984	21,395	2,956	46,367	70,718
1999	13,060	23,899	3,020	54,800	94,779
2000	13,955	28,089	4,386	62,009	108,439
2001	14,774	29,016	3,264	59,115	106,169
2002	9,239	587	1,601	36,969	48,396
2003	19,341	37,455	3,738	68,105	128,639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제조업 발전에 있어서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물류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당연하겠지만 중평군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중평군의 제조업

중 주요 업종 대부분은 증평보다는 청주 및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제품 판매시장으로 하고 있다.

원료의 구매 역시 증평지역 내에 국한하지 않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제품과 원료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것이 증평군 제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부고속도로와 충주-청주를 연결하는 36번 국도와 진천-괴산을 연결하는 34호선 국도가 증평군의 지역간 도로망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 공항이 인접해 있다. 충북선이 증평군을 관통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증평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중부내륙의 교통요지로서 제조업 발달에 좋은 물류요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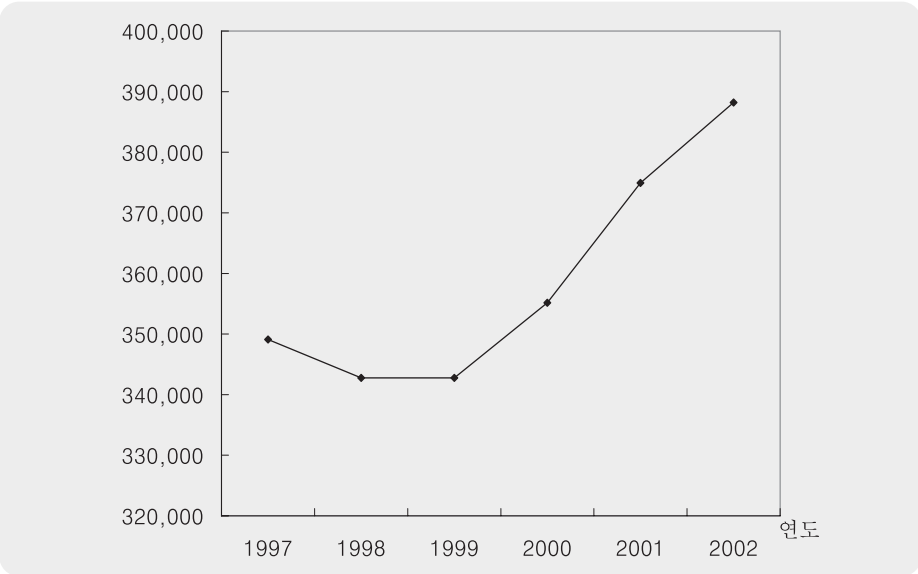
증평읍 장동리
한국전력 괴산지사

3) 공업용지 및 공업금융 문제

증평군의 경우 제조업의 증가에 따라 공업용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농업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산업적 수요에 따라 농지의 공업용지로의 전환이 탄력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며, 제조업 발달에 따라 농지전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민간인 저축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제조업 생산자금은 시중은행과 농협 등의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표 51. 증평군의 공장용지 변화추이 (단위 : m²)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제조업의 현황

1) 제조업 전체현황

(1)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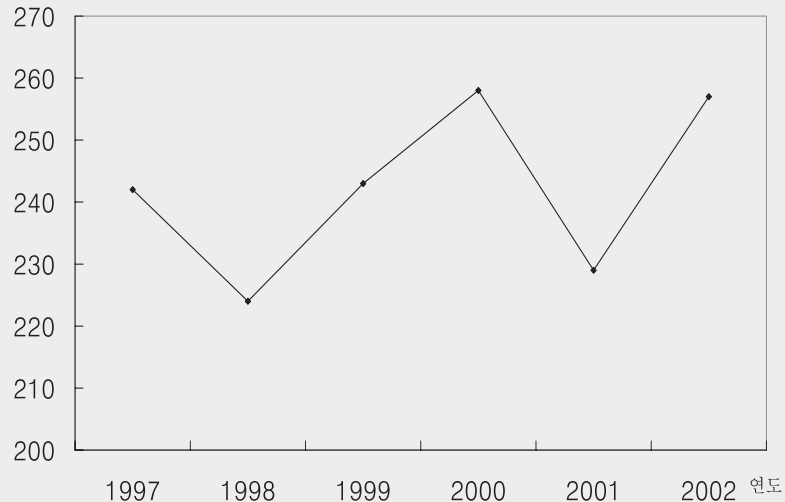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업체수가 감소했지만 1998년 중반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면서 불규칙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도산한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급감한 것으로 보이며, 1999년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2000년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경기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감소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2002년에는 증평출장소에서 증평균의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산업 내에 퍼지면서 창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사업체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표 52. 증평균의 사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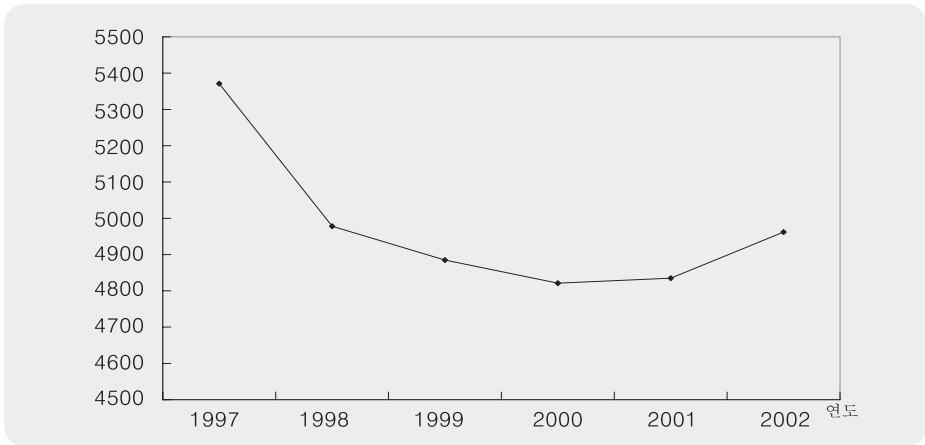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2) 월평균 종사자

1997년 경제위기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종사자수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기는 하지만 감소할 때와는 반대로 둔한 상승세를 보이고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만큼 기업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 표 53. 증평균의 월평균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명)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그러나 사업체수의 변화추이와 비교해 보면 사업체수는 기간에 따라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사자수는 1998년 IMF 여파로 급감한 이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증평균의 사업체 규모가 중소기업의 사업체가 많으며, 소규모 기업체의 창업 및 신규진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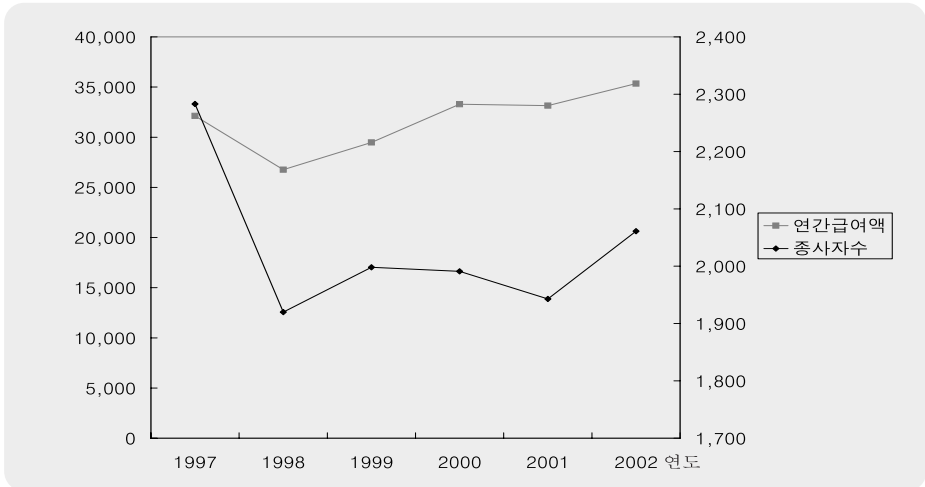
(3) 연간급여액

증평균의 광공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연간급여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인 1998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2002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와 연간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1999년 이후 2001년까지 종사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간 급여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생산성에 비해 종사자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 표 54. 증평균 광공업체의 연간 급여액 변화추이

(단위 : 명)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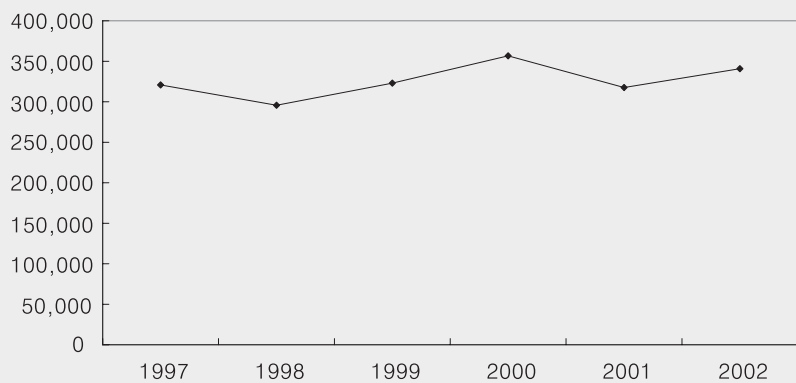
(4) 생산액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생산액이 감소했으나, 1998년 이후 중평균 광공업체의 생산액이 점차 상승추세를 보이는 듯하다. 그 이후 증가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들어 광공업의 생산액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평균의 광공업 중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조업의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55. 중평균 광공업 생산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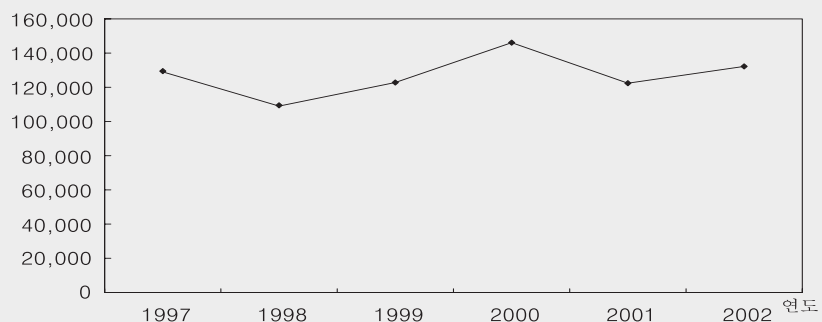
(5)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액은 생산액에서 직접생산비(= 원재료비 + 연료비 + 구입전력비 + 구입용수비 + 외주가공비 + 수선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생산활동의 결과 원재료에 덧붙여 증가한 순생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와 급여충액 등의 간접생산비가 포함돼 있다.

중평균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1998년 경제위기 여파로 급감했으나 그 이후 200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1년에 다시 감소했다가 2002년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 표 56. 중평균 광공업 부가가치액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이러한 광공업의 부가가치액 변화추이는 중평균의 광공업 사업체의 생산액 변화추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사업체수의 변화추이와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체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이 상호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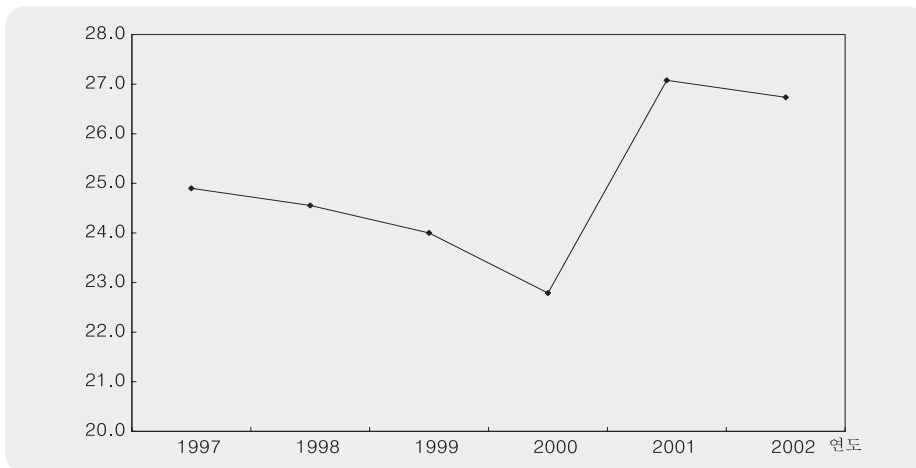
(6) 임금분배율

이는 순 생산물 중 임금으로 분배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계층 간 소득분배의 현황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1997년 이후 임금분배율은 점점 악화됐으나 2000년 ~ 2001년에 걸쳐 임금배분율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경우 그것은 임금총액의 증가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임금총액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임금배분율이 다시 악화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 표 57. 중평균의 부가가치 중 급여액 비율

(단위 :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7)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

부가가가치가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의 생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이 생산액의 증가율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은 상승하게 된다.

〈표 58〉을 보면 중평균에서 이 비율은 1998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1년에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며, 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평균의 광공업에서 생산액 중 부가가치 비율이 50%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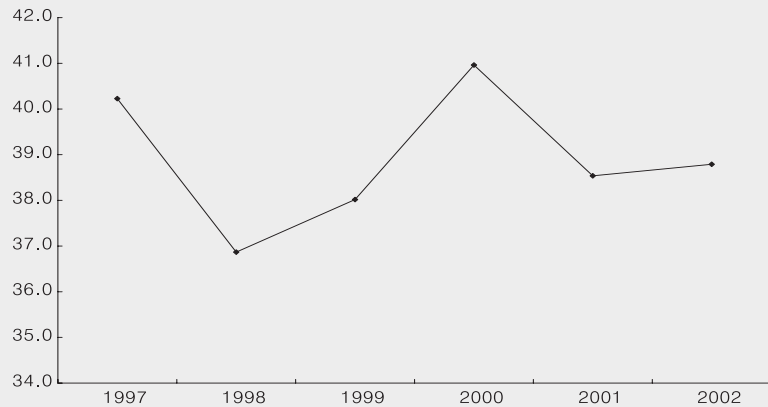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 지역편』, 각년도.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증평균의 생산액 중 부가가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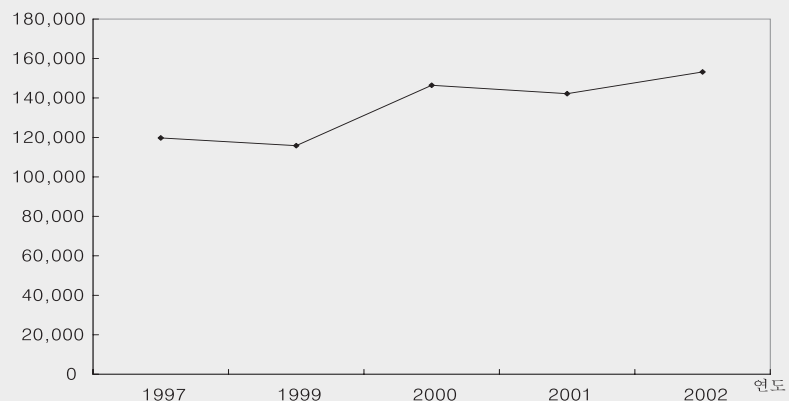


(8)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1997년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그 진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증평균 제조업의 유형자산 연말잔액

(단위 : 백만원)



그러나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상승국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증평균 제조업체들이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동향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점차 생산설비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어서 향후 증평균 제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종사자 규모별 산업현황

(1) 사업체수

증평균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광공업에서 50인 이하 사업체

가 37개소로 광공업 전체 사업체수의 78.7%를 차지하고 있어 증평균의 제조 업체들이 영세한 소규모 기업체로 나타났다.

●● 표 60. 종사자 규모별 생산현황(2003)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증사자규모별	10인이하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계
사업체수	16	21	3	6	1	47
비 중	34.0	44.7	6.4	12.8	2.1	100.0
월평균종업원수	105	365	206	981	404	2,061
비 중	5.1	17.7	10.0	47.6	19.6	100.0
연간급여액	1,324	4,379	3,617	19,557	6,466	35,343
(퇴직금제외) 비 중	3.7	12.4	10.2	55.3	18.3	100.0
생산액	13,655	35,439	39,697	182,048	69,984	340,823
비 중	4.0	10.4	11.6	53.4	20.5	100.0
출하액	13,442	33,778	31,808	188,809	68,889	336,726
비 중	4.0	10.0	9.4	56.1	20.5	100.0
연말재고액	685	5,399	18,225	16,160	6,709	47,178
비 중	1.5	11.4	38.6	34.3	14.2	100.0
주요생산비	9,894	21,053	24,766	109,970	42,938	208,621
비 중	4.7	10.1	11.9	52.7	20.6	100.0
부가가치	3,761	14,386	14,931	72,078	27,046	132,202
비 중	2.8	10.9	11.3	54.5	20.5	100.0
유형고정자산	7,496	23,427	18,136	80,914	23,201	153,174
비 중	4.9	15.3	11.8	52.8	15.1	100.0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중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은 증평균에 총 9개소가 있으며, 전체 사업체 수의 19.2 %를 차지하고 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 타났다.

(2) 월평균 종사자수

증평균 광공업의 월평균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57.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인 미 만 규모의 사업체의 비중이 22.8%, 300인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19.6%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다. <표 60> 참조

(3) 연간 급여액

증평균 광공업에서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을 살펴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의 비중이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 18.3%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월평균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의 비중이 50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았으나 연간 급여액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영세하고 소규모인 사업체들의 경우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을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1> 참조

● ● 표 61. 직종별 연간 급여액

(단위 : 천원)

직종 \ 년	2000	2001	2002	2003
직종 평균	1,313,910	1,393,059	1,532,750	1,651,1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전	2,312,210	2,456,280	2,641,750	2,926,734
전문직	1,786,017	1,920,172	2,052,085	2,230,152
기술공 및 준전문가	1,491,265	1,598,285	1,766,506	1,892,107
사무종사자	1,170,980	1,223,283	1,429,125	1,529,637
서비스종사자	1,011,927	1,053,515	1,101,971	1,181,811
판매종사자	988,856	1,028,279	1,310,968	1,388,254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1,079,768	1,129,236	1,317,577	1,456,09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203,855	1,279,732	1,397,597	1,477,1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69,523	1,228,260	1,356,223	1,425,276
단순노무종사자	810,260	818,587	918,251	970,234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급여를 직종별로 보면 고학력일수록, 전문직일수록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인상률도 타 직종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생산액

증평균은 중대형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중소기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액도 중대형 기업보다는 많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체의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에서 6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증평균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14.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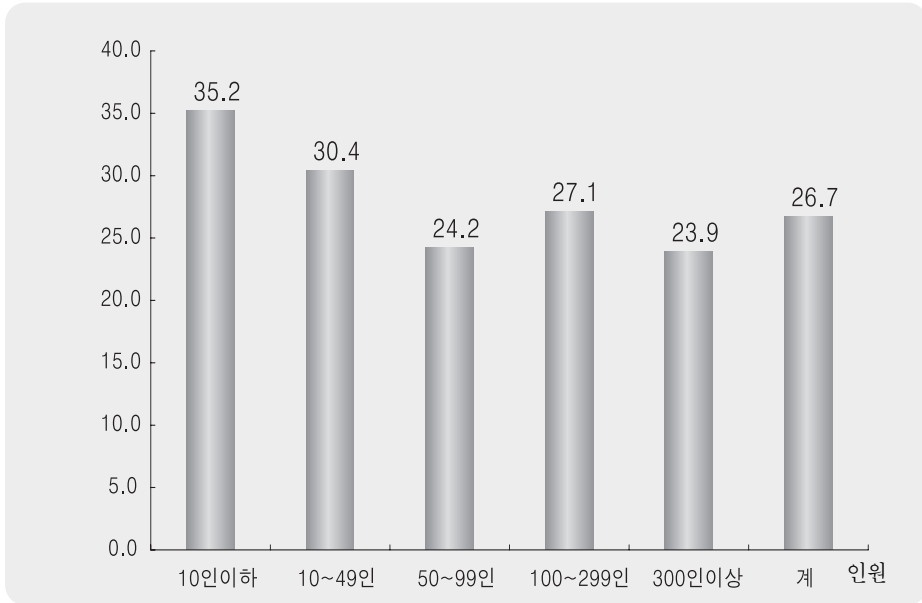
(5) 부가가치액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증평균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중대형 기업이 부가가치 생산으로는 더욱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6) 임금배분율

규모별 임금배분율을 보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임금배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10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3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62. 증평균 광공업 규모별 임금배분율 현황
 (단위 : 천원)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는 전체 평균 26.7%를 나타내고 있는데 50인 이상 100인 미만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각각 24.2, 2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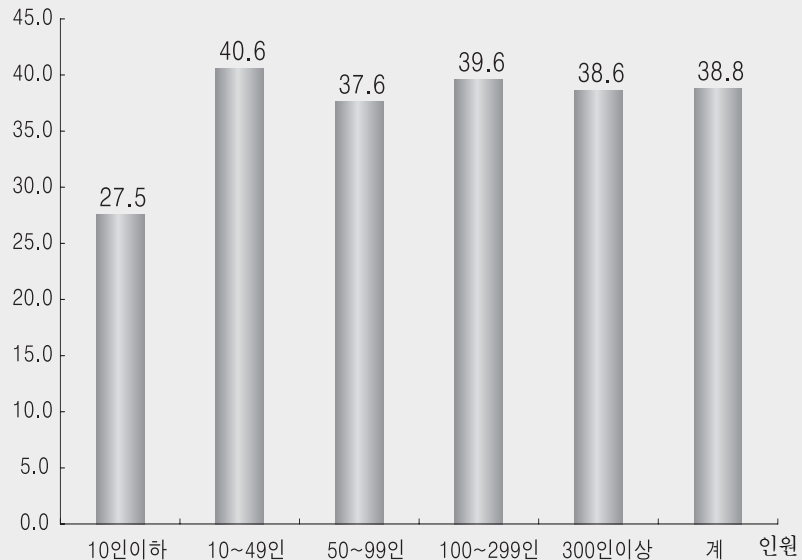
(7) 부가가치생산의 효율성

증평균의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을 살펴보면 10이상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가장 높은 40.6%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가 39.6%,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3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금배분율이 제일 좋았던 10인이하 규모의 사업체는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이 27.5%에 불과하고 증평균 전체 평균(38.8%)에도 미달하는 등 생산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표 63. 증평균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효율성

(단위 : %)



■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8) 유형고정자산 연말 잔액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유형고정자산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체들이 가장 높은 6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20.2%를, 그 다음으로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이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설비에 있어서 대규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평균에서는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이는 대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설비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규모 기업들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3. 제조업종별 현황

(1) 공업부문 간 제조업 주요지표 비교

우선 사업체수는 산업 특성상 영세한 업체가 많은 재래공업부문이 제조업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수와 월평균 종사자수는 IMF이후 변동은 있으나 큰 변동폭은 보이지는 않고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급여액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 표 64. 광공업 주요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	산업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1997		48	2,283	32,129
1998		43	1,920	26,764
1999		42	1,998	29,473
2000		46	1,991	33,292
2001		49	1,943	33,142
2002		47	2,061	35,343
합 계		275	9,913	190,143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업종별 제조업 주요지표

제조업을 크게 분류해보면 재래공업과 근대공업, 첨단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재래공업은 주로 경공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재래산업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료품, 담배, 섬유제품, 의복·모피제품, 가죽·가방·마구류·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출판·인쇄·기술매체 복제업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경우에 따라서 근대공업 혹은 첨단공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근대공업은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제조업과 제 1차 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 첨단산업을 제외한 중화학공업분야를 근대공업으로 분류했다.

첨단산업은 주로 최근에 부상한 업종들로 사무·계산·회계용 기계,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표 65. 업종별 제조업체의 주요 지표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업종별	사업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퇴직금제외)	생산액	출하액	연말 재고액	주요 생산비	부가 가치	유형 고정자산
C. 광업	1	13	393	3,800	3,800	-	2,735	1,065	830
12. 비금속광물광업(연료용제외)	1	13	393	3,800	3,800	-	2,735	1,065	830
D. 제조업	46	2,048	34,950	337,023	332,926	47,178	205,886	131,137	152,344
15.음,식료품제조업	14	514	7,415	74,265	64,028	23,421	38,827	35,438	21,645
17.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외)	4	61	566	1,915	1,930	15	869	1,046	7,240
20.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1	5	25	235	234	11	175	60	322
21.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	11	85	2,041	1,935	106	1,031	1,010	643

업종별	사업 체수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퇴직금제외)	생산액	출하액	연말 재고액	주요 생산비	부가 가치	유형 고정자산
22.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	141	3,025	25,735	26,593	1,819	19,100	6,635	6,952
24.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	14	160	1,774	1,703	101	886	888	1,017
25.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	353	6,498	35,101	35,411	5,000	18,781	16,320	22,988
26.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6	70	764	8,772	8,620	581	5,351	3,421	3,170
28.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4	176	2,843	14,406	14,479	2,060	5,403	9,003	6,438
31.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2	71	1,212	12,696	12,673	72	7,648	5,048	1,762
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	632	12,357	160,083	165,320	13,992	107,815	52,268	80,167
합 계	47	2,061	35,343	340,823	336,726	94,356	417,242	264,404	306,348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대체로 경공업에 해당되는 산업을 재래공업으로 분류해 각 산업의 제조업 주요지표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음식료품제조업과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그리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월평균 종사자수와 연간 급여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의 비중이 큰 것은 기본적으로 증평에서 1차 산업이 발전 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수가 증평균 전체 제조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통산업의 분류에 따라 사업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 사업체수 중 50%를 넘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균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대공업을 분류해 보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포함되는데 2003년 현재 6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월평균 367명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대공업의 생산액은 36,875백만원이고 출하액은 37,114백만원으로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액은 17,20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형고정자산은 24,005백만원으로 조사됐다.

증평균의 근대공업은 부가가치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증평균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증평균의 첨단산업을 분류해 보면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 들 첨단산업의 사업체수는 12개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에서 26.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고, 월평균 종사자수는 879명으로 전체 월평균



증평읍 용강리 두산전자

종사자수에서 46.7%를 차지하고 있어 증평균의 첨단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핵심기술분야에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평균 첨단산업의 생산액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전체 생산액과 출하액 중 이 첨단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가가치 산출액도 전체 제조업 중에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고정자산액 또한 다른 산업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고정자산 즉 생산설비투자금액이 높은 것은 전반적으로 증평균의 첨단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집약적 설비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생산액, 출하액 그리고 부가가치액도 또한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4. 증평균의 노동시장 현황과 특성

증평균은 벼농사, 축산업 등이 발달한 농촌지역과 중소기업이 다수 들어선 도시지역이 동시에 발달한 도 · 농 복합형 도시이다. 2차 산업 혹은 3차 산업이 주요 산업인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실직시 특별한 생계수단이 주어지지 않는 한 실업자로 남게 된다.

반면, 증평균의 경우 도시부문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당하더라도 주변의 농촌지역에서 생계를 꾸릴 여지가 있다. 이처럼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방출된 종사자를 흡수하고 이를 통해 실직자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1차 산업에 의한 노동수요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때문에 농사일이 한가한 특정계절이 되면 농촌에서의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촌 이외의 지역인 도시지역에서 일거리를 찾게 되는데 이들이 여타 산업, 특히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부문에 노동력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증평균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노동시장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증평균은 도 · 농 복합도시라는 점 이외에도 인근에 청주 등 대도시가 있고, 교통이 편리해 인구의 유출입이 빈번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증평균으로의 전입자는 노동공급의 다른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유출이 증가함으로써 실업문제가 완화될



두산전자 사업체 근로자 근무모습

수 있다.

결국 농촌의 발달이나 도시 인구의 빈번한 유·출입은 중평의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만들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실업 통계를 기초로 각종 대책을 마련할 때 중평의 이러한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평군에서는 제조업이나 3차산업 종사자가 실직하게 되면 농업에 종사하거나 중평의 외부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실업자에 속하지만 통계상 실업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실업자의 수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평의 실업자 통계를 근거로 고용증대 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을 실시할 때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실제 실업자가 통계치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과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이들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5. 중평군의 산업단지

1) 농공단지



도안면 광덕리 도안농공단지

중평군에 있는 농공단지는 중평농공단지와 도안농공단지 두 곳이 있다. 중평농공단지는 중평읍 용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에 착공해 1988년에 준공돼 6만 5,875㎡의 부지가 조성됐다. 그리고 현재 세왕화학(주), 두산전자(주), (주)코스모텍 등 3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에 있다.

도안농공단지는 1986년 11월에 착공해 1987년 11월에 준공했으며, 9만3,210㎡의 부지가 조성됐다. 그리고 현재 부도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한 반도체산업, 한국알루미늄(주), 풀무원 건강생활(주), 명가식품(주) 등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다.

이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총 8개 기업이 입주했는데 이 중 부도 중인 1개 업체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음식료품 산업이 3개, 전기전자산업이 2개, 조립금속산업이 2곳, 1차 금속산업이 1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66. 증평군 농공단지의 업종별 산업현황

(단위 : 개)

	계	음식료품	1차금속	조립금속	전기전자
계	8	3	1	2	2
증평농공단지	3	-	1	-	2
도안농공단지	5	3	-	2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증평군 농공단지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증평농공단지에는 224명, 도안농공단지에 365명 등 총 589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종사자 대부분 전문기능 및 단순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7. 증평군 농공단지의 고용현황

(단위 : 명)

	계	기능별				지역별		성 별	
		사무	기술	기능	일용	현지인	외지인	남	여
계	589	106	52	404	27	404	185	444	145
증평농공단지	224	33	29	162	-	146	78	212	12
도안농공단지	365	73	23	242	27	258	107	232	133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지인의 비율보다는 현지인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생산된 소득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부분보다 증평군내로 환류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증평군 농공단지에서 남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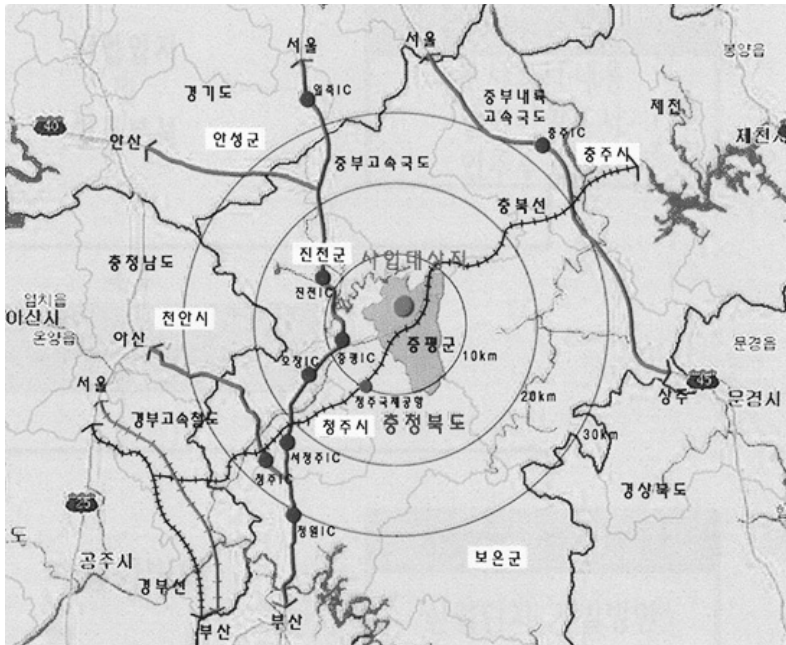
2)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재 증평군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로는 증평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곳은 현재 충북 증평군 미암리 310-12번지 일원에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증평지방산업단지의 총 조성면적은 진입로를 포함해 72만 1,000㎡로 조성중에 있다.

또한 증평지방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2004년 2월에 착공해 2008년 12월에 조성완료를 목표로 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여건으로는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화에 따른 인구유입 등 개발여건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주공항, 중부고속도로, 충북선 철도, 34번국도, 36번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철도 오송역 설치 예정 등의 교통자원은 증평지역이 내륙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됐다.

●● 그림 1. 증평군에 조성중인 증평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증평군 홈페이지
(www.jp.go.kr)

이와 같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더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증평군 내에 청주과학대학이 자리하고 있고 대전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와 중부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돼 있어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여건 또한 증평군이 과학산업의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성숙돼 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해 증평지방산업단지의 미래상을 조명해 보면 조성중인 산업단지 내에 미래 첨단산

업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항공, 우주분야 연구와 장비 개발을 주도할 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서를 체결, 항공우주연구원 증평 연구소 설립을 확정했으므로 현재 증평군 인근에 추진중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4대 보건의료 대책기관 이전,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생명과학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센터 건



증평읍 미암리 증평지방산업단지 부지

립에 이어 증평에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소가 건립됨에 따라 증평은 오송-오창과 함께 중부권 미래 첨단 산업벨트의 한 축으로서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의 증평연구소 건립에 따라 3천4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5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5천여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청주공항이 미래 항공우주사업의 산업화 선도 역할을 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항공연구원 증평연구소는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차세대 항공기와 전투기 개발, 항공 안전품질 인증 등 실질적인 항공·우주기술 개발 및 실험을 담당하게 돼 항공우주 관련 분야 산업체 및 민간 연구소의 연쇄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증평산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범 집필

제4절 교통과 통신

제4절

1. 도로

1) 개관

교통에서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로와 도로에 따르는 시설물, 교량이다. 그리고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도로의 운송 분담률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사회간접자본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도로는 인간 상호간의 이동과 교류, 물자(상품)의 유통, 문화의 이동 등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개량은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상품 유통체계 및 물류유통 속도가 빨라져 여러 지역으로 산업을 분산시키며,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 지역간 연계의 활성화, 문화교류의 확대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

증평의 도로는 그 연장이 2002년부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지방도가 크게 증가했다. 증평의 도로별 비중은 전체의 약 55.5%가 시·군도이며, 지방도가 26.4%, 일반국도가 1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선 철도와 36번 국도
(도안역 부근)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9. 증평군, 『통계연보』, 2004

● ● 표 68. 도로별 비중 비교

(단위 : %)

구 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 · 광역	시군도
전국 도로별 비중	2	14	20	20	44
증평의 도로별 비중	-	18.1	26.4	-	55.5

증평의 도로 비중별 수치는 전국 도로별 비중과 비교해 일반국도, 지방도, 시 · 군도 모두가 약간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증평지역의 도로현황과 자동차 등록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 ● 표 69. 증평의 도로현황

(단위 : m)

구분 년도	합 계			일 반 국 도			지 방 도			군 도		
	계	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개통
1998	75,351	45,051	6,800	14,951	14,951	-	12,900	12,900	-	47,500	17,200	6,800
1999	75,351	45,651	6,800	14,951	14,951	-	12,900	12,900	-	47,500	17,800	6,800
2000	75,351	46,251	5,900	14,951	14,951	-	12,900	12,900	-	47,500	18,400	5,900
2001	75,351	46,251	5,900	14,951	14,951	-	12,900	12,900	-	47,500	18,400	5,900
2002	83,251	53,901	7,450	14,951	14,951	-	22,000	22,000	-	46,300	16,950	7,450
2003	83,251	53,901	7,450	14,951	14,951	-	22,000	22,000	-	46,300	16,950	7,45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6~177쪽

● ● 표 70.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연 도	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998	7,686	4,971	541	2,124	50
1999	8,066	5,048	689	2,282	47
2000	8,598	5,119	986	2,442	51
2001	8,906	5,591	734	2,529	52
2002	9,384	5,856	764	2,706	58
2003	10,037	6,303	779	2,895	6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82~183쪽

1) 일반국도

일반국도는 전국의 중요도시 및 국가공단,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의 간선도로망이다.

증평의 일반국도는 34번국도, 36번국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총연장 14,951m이며, 100%의 도로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34번 국도는 당진에서 영덕까지 이어지는 연장 266km 도로이다. 증평지역의

36번 국도는 연탄리를 기점으로 해 도당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연장 10,767m의 도로이다. 이 도로는 증평군의 북서부를 동서로 관통해 동쪽으로는 괴산군, 서로는 진천군으로 연결된다.

36번 국도는 보령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연장 290km 도로이다. 증평지역의 36번 국도는 초중리를 기점으로 해 송정리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연장 4,184m의 도로이다. 이 도로는 증평군의 중앙지역을 통과해 북쪽의 도안지역을 지나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원군, 북쪽으로는 음성군과 연결된다.

● ● 표 71. 일반국도 현황

(2003년 현재)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 ~ 종점	연장	포장
계	2개노선		14,951m	100.0%
34	당진(唐津) 영덕선(盈德線)	연탄(連灘)~도당(道塘)	10,767m	100.0%
36	보령(保寧) 울진선(蔚珍線)	초중(楚中)~송정(松亭)	4,184m	100.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6~177쪽

2) 지방도

지방도는 도청소재지로부터 시·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로, 시·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와 도내의 주요시설로부터 상급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방의 간선망을 이루는 도로이다. 그리고 지방도 중에서 일반국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간선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하고 있다.

증평의 지방도는 1997년에 12,900m이던 것이 2002년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 22,000m가 됐으며, 증평의 지방도 포장률은 100%이다. 증평의 지방도는 510번 지방도, 540번 지방도, 592번 지방도 등 3개 노선이 있다.

510번 지방도로는 오창(梧倉)~살미(충주시)선으로 증평군 광덕리, 송정리, 노암리, 미암리, 송산리, 연탄리를 통과하며, 연장 9,900m이다. 이 도로는 동북쪽으로 괴산군 사리면에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진천군 초평면으로 연결된다. 이 지방도로는 미암리와 연탄리에서 34번 국도와 연결되고 있다.

540번 지방도로는 용두(龍頭)~증평선으로 남차리를 기점으로 해 창동(昌洞)을 종점으로 하는데 연장 8,100m이다. 이 지방도로는 36번국도와 연결되고 있다.

592번 지방도로는 증평~청천(淸川)선으로 증천을 기점으로 하며 용강(龍江)을 종점으로 하는데 연장 4,200m이다. 이 지방도로는 동쪽으로 청안면과 연결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증천에서 540번 지방도로에 연결되고 있다.

● 표 72. 지방도 현황

(2003년 현재)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 ~ 종점	연장	포장
계	3개노선		22,000m	100.0%
510	오창(梧倉)~살미線	연탄(連灘)~연탄(連灘)	9,900m	100.0%
540	용두(龍頭)~중평선(曾坪線)	남차(南次)~창동(昌洞)	8,100m	100.0%
592	중평(曾坪)~청천선(淸川線)	중천(曾川)~용강(龍江)	4,200m	100.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6~177쪽

3) 군도

군도는 군청소재지로부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와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군내의 도로이다.

증평의 군도는 8개 노선으로 총연장 46,300m이며, 도로포장률은 36.6%이다.

1번 군도는 종암(鍾岩)~문방(文芳)선으로 율리(栗里)를 기점으로 하고 남차리(南次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7,000m이며 도로포장률은 71.4%이다.

2번 군도는 중평~미암(彌岩)선으로 창동(倉洞)을 기점으로 하고 미암리(彌岩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2,800m이며 도로포장률은 100%이다.

3번 군도는 중평~청룡(淸龍)선으로 장동(莊洞)을 기점으로 하고 도당리(道塘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5,400m이며 도로포장률은 90.7%이다.

5번 군도는 남차(南次)~문암(文岩)선으로 남차리(南次里)를 기점으로 하고 광덕리(光德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11,800m이다.

6번 군도는 호명(虎鳴)~운곡(雲谷)선으로 남하리(南下里)를 기점으로 하고 덕상리(德祥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3,600m이다.

7번 군도는 송정(松亭)~신통(新通)선으로 화성리(花城里)를 기점으로 하고 석촌리(碩村里)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5,500m이다.

8번 군도는 초중(楚中)~장동(莊洞)선으로 초중리(楚中里)를 기점으로 하고 장동(莊洞)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3,800m이며 도로포장률은 50%이다.

9번 군도는 남차(南次)~중천(曾川)선으로 남차리(南次里)를 기점으로 중천(曾川)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도로로 연장 6,400m이며 도로포장률은 43.8%이다.

●● 표 73. 군도 현황

(2003년 현재)

노선번호	노 선 명	기점 ~ 종점	연장	포장
계	8개노선		46,300m	36.6%
1	종암(鍾岩)~문방선(文芳線)	율리(栗里)~남차(南次)	7,000m	71.4%
2	증평(曾坪)~미암선(彌岩線)	창동(昌洞)~미암(彌岩)	2,800m	100.0%
3	증평(曾坪)~청용선(淸龍線)	장동(莊洞)~도당(道塘)	5,400m	90.7%
5	남차(南次)~문암선(文岩線)	남차(南次)~광덕(光德)	11,800m	-
6	호명(虎鳴)~운곡선(雲谷線)	남하리(南下里)~덕상(德祥)	3,600m	-
7	송정(松亭)~신통선(新通線)	화성(花城)~석촌(碩村)	5,500m	-
8	초중(楚中)~장동선(莊洞線)	초중(楚中)~장동(莊洞)	3,800m	50.0%
9	남차(南次)~증천선(曾川線)	남차(南次)~증천(曾川)	6,400m	43.8%

4) 교량

증평군의 교량은 2003년 현재 14개소로 일반국도에 5개소, 지방도에 2개소, 군도에 7개소이며, 교량연장은 1,454.3m이다.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6~177쪽

●● 표 74. 증평의 교량현황

(단위 : m)

구분 연도	합 계		일 반 국 도		지 방 도		군 도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연 장	개 소
1998	1,020.6	11	413.0	3	77.0	2	530.6	6
1999	1,026	11	413.0	3	77.0	2	536.0	6
2000	1,026	11	413.0	3	77.0	2	536.0	6
2001	1,077.2	11	413.0	3	77.0	2	587.2	6
2002	1,077.2	11	413.0	3	77.0	2	587.2	6
2003	1,454.3	14	755.1	5	70.0	2	629.2	7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78~179쪽

2. 철 도

철도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육상교통의 본격화를 이끌어 온 교통수단이었으며, 증평의 근대적 발전에 큰 계기가 됐다.

충북선은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15km의 노선으로 충북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철도이다. 충북선이 증평지역을 통과하면서 증평의 근대화에 큰 역할을 했다.



충북선 개통

1923년 5월 1일 청주-청안(중평)간이 개통됐고, 1928년 12월 25일에는 청안-충주 구간이 개통되게 이르렀으며, 1958년 12월 31일 충주-제천구간이 완공했다.

충북선은 수송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1980년 10월에 복선화가 완공되고, 2005년 3월에는 충북선 전 구간에 전철화가 이루어져 개통됐다.

●● 표 75. 철도 수송 현황

연 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 (명)	하차인원 (명)	여객수입 (천원)	화물발송 (톤)	도착화물 (톤)	화물수입 (천원)
1998	67,257	47,636	281,801	864	128,588	4,105
1999	66,531	39,277	292,539	418	171,012	8,349
2000	68,835	39,373	309,678	5,765	175,261	9,976
2001	68,259	41,466	327,935	883	163,593	13,347
2002	50,865	40,137	308,115	930	209,620	8,301
2003	21,255	25,652	312,014	25,686	18,897	5,761
중평역	21,009	25,213	305,069	25,387	18,729	3,248
도안역	246	439	6,945	299	168	2,513

☐ 중평군, 『통계연보』, 2004, 186~187쪽

3. 통 신



우체국 택배 차량

중평의 우편시설은 3개 우체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우체국인 중평우체국, 별정우체국인 도안우체국, 군사우체국이다.

중평우체국은 1923년에 중평우편소로 개소돼 1949년 8월 13일 중평우체국으로 승격됐으며, 1989년 2월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안우체국은 1962년 5월 31일에 별정우체국으로 개국했으며, 1992년 3월 2일 현재의 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했다.

중평의 우편시설 현황, 우편물 취급 현황, 우편요금 수입 현황, 인터넷 가입자 및 이동통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76. 우편 시설 현황

연 도	우 체 국 수				직원수	집배원수	우 체 통			사서함 시설수	수송장비		우표류 판매소
	계	일반국	별정국	군우국			계	갑	을		자동차	이륜차	
1998	3	1	1	1	27	12	52	25	27	6	1	12	49
1999	3	1	1	1	36	18	51	26	25	4	1	6	37
2000	3	1	1	1	42	19	51	32	19	7	1	17	36
2001	3	1	1	1	33	19	64	34	30	7	2	17	35
2002	3	1	1	1	40	17	62	34	28	10	2	17	25
2003	3	1	1	1	43	20	53	34	19	10	2	19	21
증평역	2	1		1	37	18	48	32	16	10	2	17	21
도안역	1		1		6	2	5	2	3	-	-	2	-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88~189쪽

●● 표 77. 우편물 취급 현황

연 도	국 내 (천 통)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98	4,239	1,451	2,688	1,378	2,584	165	95	8	9
1999	4,480	1,441	3,039	1,361	2,920	64	109	16	10
2000	5,142	1,304	3,838	1,207	3,690	70	136	27	12
2001	6,891	1,685	5,206	1,579	5,010	72	160	34	36
2002	6,112	1,449	4,663	1,340	4,461	78	164	31	38
2003	6,280	1,461	4,819	1,347	4,593	78	179	36	47
증평우체국	6,022	1,203	4,819	1,108	4,593	71	179	24	47
도안우체국	258	258	-	239	-	7	-	12	-

연 도	국 제 (통)								
	총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계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접수	배달
1998	8,583	6,773	1,810	6,129	1,381	392	275	252	154
1999	9,908	7,025	2,073	6,250	1,637	515	298	260	138
2000	9,244	6,209	3,035	5,414	2,472	479	382	316	181
2001	9,673	6,189	3,484	5,321	2,665	646	588	222	231
2002	7,630	5,117	2,513	3,987	1,754	931	577	199	182
2003	10,429	5,077	5,352	2,417	4,367	2,348	639	312	346
증평우체국	8,350	2,998	5,352	2,075	4,367	768	639	155	346
도안우체국	2,079	2,079	-	342	-	1,580	-	157	-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도안우체국우편사업현황자료

●● 표 78. 우편요금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계		일 반		특 수		소 포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1998	337,424	19,501	242,440	3,068	67,307	9,145	27,677	7,288
1999	364,594	21,603	240,089	2,578	78,810	11,260	45,695	7,765
2000	368,653	19,785	208,913	2,484	90,874	9,433	68,866	7,868
2001	458,116	26,356	279,171	2,320	90,362	18,052	88,584	5,985
2002	458,555	29,468	270,381	1,901	98,243	21,412	89,931	6,155
2003	510,371	38,761	270,951	1,363	119,093	31,544	120,327	5,854
증평우체국	402,116	31,510	211,965	1,254	107,344	24,967	82,807	5,289
도안우체국	108,255	7,251	58,986	109	11,749	6,577	37,520	565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0~191쪽

●● 표 79. 전화 사용 현황

(단위 : 도수, 천원)

연 도	국 내 전 화			국 제 전 화	
	일반전화	공중전화	요 금	일반전화	요 금
1998	79,625,156	10,748,720	4,120,568	73,799	181,932
1999	66,885,131	7,524,104	3,461,277	81,178	200,125
2000	59,245,310	4,729,740	2,374,100	73,245	184,729
2001	54,505,685	4,351,360	2,136,690	69,582	175,492
2002	68,201,583	-	1,489,418	78,672	203,246
2003	65,141,346	-	1,351,388	82,573	121,850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2~193쪽

●● 표 80. 전화시설 및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회선, 명, 대)

연 도	전화국수	시 설 수	가 입 자 수				공중전화
			계	업무용	주택용	사업용	
1998	1	17,621	15,689	4,429	11,260	-	435
1999	1	17,621	14,253	4,119	10,134	-	391
2000	1	17,621	15,588	4,788	10,800	-	420
2001	1	17,621	16,319	4,917	11,402	-	407
2002	1	17,621	16,894	4,999	11,895	-	362
2003	1	18,325	16,498	4,758	11,340	400	328

☐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2~193쪽

●● 표 81. 인터넷 가입자 및 이동통신 현황

(단위 : 명,%,회선)

연 도	인터넷가입자		이 동 통 신 현 황	
	가입자수	보 급 률	이동전화(셀룰러+PCS)	
			시설수	가입자수
2002	324,576	64.9	3,723	762,287
2003	6,999	63.6	35	11,304

증평군, 『통계연보』, 2004, 196쪽. 2002년도는 충북 전체자료

제5절 상업 및 금융업

제5절

김진덕 집필

1. 상업 및 서비스업

1) 상업유통제도의 변천과 개관

일반적으로 상업은 좁은 의미로는 상품의 직접적인 구매 및 판매를 담당하는 도소매업 등의 매매업을 말한다. 그렇지만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일체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상업으로 정의하면 여기에는 상품의 인도·구매·보관·운반·판매 등을 담당하는 모든 업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각종 도소매업 및 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도 상업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각종 소비자 보호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해 소비 및 더 나아가 생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업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증평군은 청주시 및 청원군, 음성군 등의 대규모 시장을 기반으로 해 각종 제조업체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편에 속한다.

이와 함께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더해 증평군은 상업도시로도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상업 및 유통업의 발달을 위한 제반시설 및 정책이 요구된다.

(1) 전근대 정기시 변화과정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교통, 통신 등의 연락, 운송 수단이 현재와 같이 발전하지 못한



증평읍 장뜰 재래시장

상태에서 지방 상업 활동의 중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의 기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통시장, 약령시장, 가축시장 등으로 장이 서는 날의 간격에 따라 3일 시장과 5일시장 등으로 구분됐다. 일제 시대에는 법령에 의해 정기시장, 공설시장, 중앙도매시장 등 세 가지 종류의 시장이 개설됐다. 정기시장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주로 지방의 각 성읍, 교통의 요지 혹은 상품의 집산지 등에 개설됐다. 증평군의 정기시장에서 거래된 상품은 곡류와 과채류, 생선 및 해초류 직물류 의류 일용잡화류 축산물 농기구 등 다양한 물품이 거래됐다.

(2) 현대 정기시 현황



인삼바이오센터 이벤트

증평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거해 개설 · 운영되는 1개의 정기시장과 1개의 일반시장이 있다. 증평군은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 소방서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들 시장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증평군지역에는 2003년 현재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소매점 · 도매점 등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증평지역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더욱 진전되면

장차 이들 유통시설의 건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82. 증평군의 시장분포 현황(2003)

(단위 : m²)

총 계			정기시장		일반시장	
개소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	6,660	4,099.8	1	5,530	1	1,128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3차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3차 산업 업종별 기업체수의 비중을 조사한 아래 표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83. 3차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 개, 명)

3 차 산 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	46
건설업	31	274
도소매업	644	1,425
숙박 및 음식점업	465	1,041
운수, 통신업	208	436
금융 및 보험업	30	3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1	1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1	268
교육서비스업	83	85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8	25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74	520
합 계	1,827	5,568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그 다음으로 음식 및 숙박업이 465개소,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274개소, 운수통신업이 208개소 등의 순으로 사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로 보면 도소매업이 1,425명으로 가장 많이 고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음식 및 숙박업이 1,04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업종이 증평군 3차 산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서비스업이 859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520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업

1) 증평지역 금융구조의 특징과 금융기관 현황

증평군은 1차, 2차, 3차 산업이 모두 발달한 도·농 복합 도시로서 각 산업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 지점을 설립해 영업 중에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제조업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주로 하는 시중은행(조흥은행, 국민은행)과 농업, 축산업, 과수·원예농업을 각각 지원하는 농협이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 표 84. 금융기관 현황(2003)

한국 은행	조흥 은행	한국주 택은행	중소기 업은행	국민 은행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축협 중앙회	한국산 업은행	장기신 용은행	외국 은행	합계
-	2	-	-	1	2	-	-	-	-	-	5

□ 증평군, 통계연보, 2003.

2) 예금 및 대출, 어음 결제현황

(1) 예금현황

증평군의 예금 및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예금수신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예금수신, 특히 저축성 예금의 경우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2003년에 저축성예금의 수신고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230,389백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평군의 군 승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금의 수신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85. 증평군의 예금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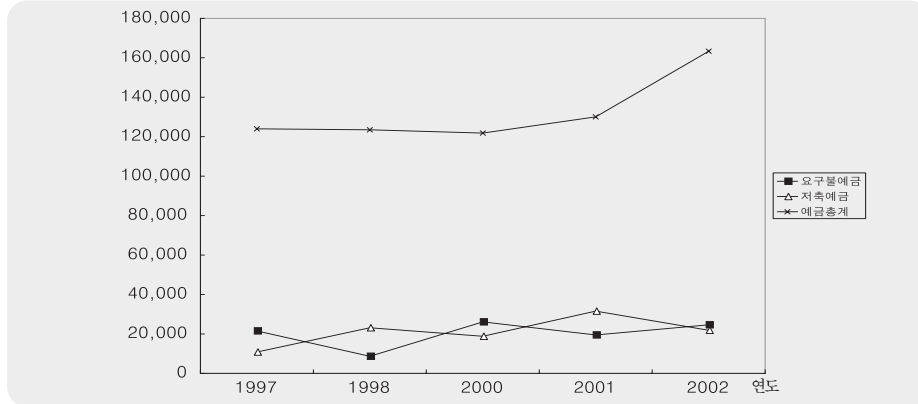
연 도	예금총계	저축성 예금					
		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자유저축 예 금	기 타
1997	123,977	102,475	11,576	9,824	10,840	6,758	63,477
1998	123,501	97,607	34,631	6,076	23,108	-	54,177
1999
2000	121,862	95,765	29,171	5,263	18,838	-	42,493
2001	130,064	110,568	41,714	5,511	31,545	5,245	26,553
2002	163,349	138,765	56,055	6,870	21,833	3,869	50,138
2003	230,389	176,854	49,245	20,853	44,547	10,222	51,987
농협	71,591	51,792	1,040	1,579	10,785	6,090	32,298
국민	84,572	73,495	30,580	11,037	15,235	-	16,643
조흥	74,226	51,567	17,625	8,237	18,527	4,132	3,046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주) 저축성예금 자유저축예
금은 '97.7월 자료부터 저
축성 예금에 포함됨

●● 표 86. 증평군의 예금수신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증평군 지역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 종류별 추이를 보면 역시 2000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의 2003년도 증가추세가 돋보이고 있다.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관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예금수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조흥은행과 농협이 차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 대출 및 어음결제 현황

증평군의 대출현황을 보면 1997년 96,478백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49,902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출현황을 금융기관별로 보게 되면 조흥은행이 대출실적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국민은행, 농협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자금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농협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예금실적 및 대출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87. 어음결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요구불예금	대 출	어 음 교 환				
			장 수	금 액 (백만원)	장당평균 (천원)	부 도 액 (백만원)	부 도 율
1997	21,502	96,478	209	26,130,148	7,999	218,614	...
1998	8,669	87,347	218	257,269	1,552	975,233	...
1999
2000	26,079	95,268	178	210,063	1,267	-	-
2001	19,496	147,920
2002	24,584	200,196	-	-	-	-	-
2003	53,535	249,902	154	410,860	8,217	2,415	0.58
농협	19,799	58,459	66	24,968	3,783	288	1.15
국민	11,077	69,990	1	130	-	-	-
조흥	22,659	121,453	87	385,762	4,434	2,127	0.55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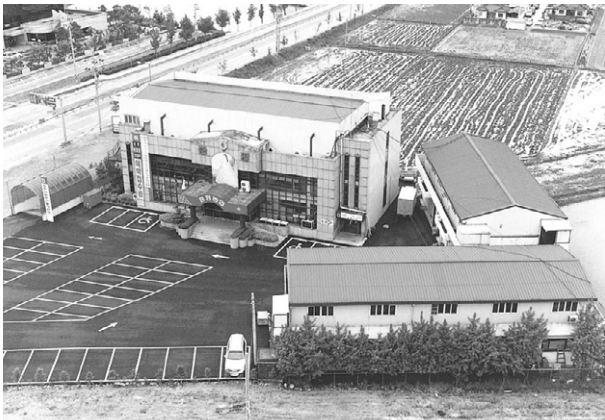
증평군의 결제어음 장수는 1997년 209장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54장으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어음제도에 대한 폐해를 절실히 인정하고 다른 금융제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어음의 사용이 급격히 줄면서 어음부도액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정확한 부도율의 추이를 알 수 없지만 2003년에 0.5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3) 금융기관

(1) 은행

증평에서 가장 큰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업무는 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2003년 증평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시중은행으로는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이 현재 증평군의 대표적인 예금 및 대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증평농업협동조합 전경

(2) 농협

증평군의 농협협동조합은 조합수가 1998년 이래 1개소가 존재하고 있고 조합원수는 199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평군 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주요협동사업은 판매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제공, 가공사업, 창고사업, 운송, 공제사업, 기타의 사업이 있고 여신 실적은 금융자금과 정책자금을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 표 88. 농업협동조합 사업실적 및 여신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조합수	조합원수	주요협동사업실적								연중 여신실적		
			판매사업	구매사업	생활물자	가공사업	창고사업	운송	공제사업	이용기타	계	금융자금	정책자금
1998	1	4,924	4,900	6,554	3,827	9,487	64	100	614	48	196,765	161,746	35,019
1999	1	4,924	10,440	6,400	3,546	6,410	42	42	57,410	36	218,126	177,738	40,388
2000	1	4,882	10,078	5,736	3,494	9,649	58	33	61,212	24	87,311	59,921	27,390
2001	1	4,882	58,515	5,361	5,767	6,992	47	27	40,295	26	85,362	58,043	27,319
2002	1	4,837	2,373	4,817	5,621	5,505	130	3	7,585	27	79,494	55,453	24,041
2003	1	4,654	8,013	4,939	6,111	5,038	84	6	6,735	199	77,946	52,868	25,078
증평읍	1	2,160	3,237	1,146	5,544	5,038	0	1	4,126	187	37,154	28,508	8,646
도안면	-	642	798	562	172	-	20	1	766	3	9,466	6,820	2,646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농업협동조합 증평조합의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판매사업의 경우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 2003년도에 증가추세로 전환됐고, 구매사업과 가공사업,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2003년 현재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중 여신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신실적 총계는 199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및 금융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그 대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새마을 금고

증평군에 있는 새마을 금고의 수는 2003년 현재 1곳이며 이 새마을 금고의 자산액은 34,151 백만원으로 1997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금액의 경우에도 점증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액의 경우에는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출기피현상으로 인해 새마을 금고의 대출액이 크게 감소했는데 그 이후 대출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회원수는 2003년 7,726명으로 1997년 6,269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증평새마을금고전경

●● 표 89. 증평군 새마을 금고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새마을 금고				
	금고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명)
1997	1	23,680	18,484	12,020	6,269
1998	1	22,208	17,857	10,274	6,433
1999	1	27,307	23,045	10,201	8,165
2000	1	28,521	23,765	10,587	7,684
2001	1	31,643	27,454	11,725	7,394
2002	1	32,504	26,888	12,481	7,429
2003	1	34,151	29,078	16,805	7,726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4) 신용협동조합

한국의 협동조합 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은 그 설립에 있어 관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던 반면 신용협동조합은 순수한 민간주도로 태어난 자생적, 자율적 협동조합이다. 1960년 인천의 답동신용협동조합을

시발로 신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973년 경기지구 평의회를 거쳐 1989년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지부가 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연합회로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 표 90. 증평군 신용협동조합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신용 협동조합				
	금고수	자산액	예금액	대출액	회원수(명)
2001	1	15,459	14,736	7,210	3,786
2002	1	15,169	12,901	7,731	3,854
2003	2	16,063	13,751	9,177	4,298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증평신용협동조합전경

신용협동조합은 증평지역의 서민금융에 있어서 주도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여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신상품의 개발도 진행시키고 있으며, 법 개정에 따라 1993년 2월부터 자립예탁금 대월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규모를 증가 시킬 수 있게 됐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조합원들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야간 및 휴일 업무의 실현, 신용카드 발급, 공제사업 극대화, 대출간소화 및 홈

뱅킹과 기업금융의 확대 등 금융기관으로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제6절

제6절 증평의 건설업

1. 주택 및 건축

1)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단독 주택형이 많다.

97년 이후로 가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이농(離農)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연립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다른 주거 형태 등의 등장으로 인해 단독주택의 선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다음해인 2001년에는 1999년보다도 더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2003년에 가구수의 증가, 종류별 주택수의 증가, 아파트 보급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군 승격 이후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표 91. 주택의 종류

(단위 : 동)

연도	가구수	합 계	주 택 보급률	종 류 별 주 택 수					
				단독주택	다가구 주 택	아파트	연 립 주 택	다세대 주 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997	9,367	9,628	98.9	5,703	-	3,007	409	149	-
1998	9,325	9,254	99.2	5,689	-	3,007	409	149	-
1999	9,028	9,211	102	5,646	-	3,007	409	149	-
2000	8,707	8,167	93.7	4,042	-	3,280	441	172	232
2001	8,720	9,306	106.7	5,361	-	3,368	409	168	-
2002	8,391	8,643	103	4,688	525	3,368	419	168	-
2003	9,055	9,425	104	4,819	62	3,995	435	176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증평군의 건축허가 현황

건축허가는 연도별 조사에서는 신축 구조물에서 철근 철골조 구조물의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 지어지는 구조물이 점차 고층화 되고 있는데 철근 철골조 재료가 고층화 시공에 유리하고, 구조물의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신축 건물에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는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고, 대형 구조물 및 고층 구조물의 시공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표 92. 증평군의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

(단위 : 동, m²)

연도별	계	콘크리트	철골	조절조	철근철골조	나무	기타
1997	129/83,956			24/2,212	38/68,359	-	67/13,385
1998	59/13,321			10/1,221	23/8,677	-	26/3,423
1999	77/22,170			7/552	30/16,645	2/368	38/4,605
2000	116/34,191			14/1,163	59/28,908	-	43/4,120
2001	112/31,557			14/1,268	71/27,765	3/164	24/2,360
2002	166/60,298	84/43,803	66/15,655	16/1,470	-	-	-
2003	121/99,424	54/86,676	52/101,82	14/1,149	-	-	1/1417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증축 및 개축 사업에서도 철근 철골조 구조물의 시공을 위한 건축 허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신축 구조물 중에는 주거용, 상업용, 기타 구조물 순으로 조사됐으며, 구조물의 재료 면에서 보면 콘크리트와 조철조 구조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읍 · 면별 건축허가 현황



증평읍 장동리 주공4단지 아파트

증평군의 읍 · 면별 건축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 건축허가 동수는 크게 증가해 2003년에 121동 연면적 99,424㎡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건축허가 동수를 보면 대부분이 상업용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도에는 상업용 건축허가가 74동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주거용, 공공용, 광공업용, 기타 등의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이 난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경

우 1999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02년에 정점을 이룬 다음 2003년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증평군이 군으로 승격한 이후 증평읍을 중심으로 상가지역을 형성하면서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의 형태가 상가형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읍 · 면별로 살펴보면 증평읍의 건축허가가 도안면의 건축허가 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은 상업용 건축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93. 읍 · 면별 건축허가(1)

(단위 : 동)

연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997	-	-	-	-	-	-
1998	-	-	-	-	-	-
1999	77	22,170	9	1,539	48	7,580
2000	116	34,191	40	11,690	54	10,944
2001	112	31,557	44	11,285	49	9,873
2002	166	60,928	63	25,856	54	21,802
2003	121	99,424	27	65,389	74	24,744
증평읍	114	97,553	23	65,082	73	24,660
도안면	7	1,871	4	307	1	84

●● 표 94. 읍·면별 건축허가(2)

(단위 : 동)

연 도	합 계		공공용		기 타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동 수	연 면 적
1997	-	-	-	-	-	-
1998	-	-	-	-	-	-
1999	7	3,561	-	-	13	9,490
2000	7	8,353	-	-	15	3,204
2001	7	6,734	-	-	12	3,665
2002	19	7,087	1	485	27	5,698
2003	6	841	6	5,215	8	3,235
증평읍	6	841	6	5,215	6	1,755
도안면	-	-	-	-	2	1,480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토지거래

토지거래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외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충청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주거지역의 건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집을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95. 토지거래 현황

(단위 : 건, 천㎡)

연 도 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용 도 지역별	합 계		건수	901	1,051	1,156	1,171	1,287	1,263	1,403
			면적	1,093	1,501	1,345	1,437	1,405	1,372	1,857
	도시 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	건수	310	376	378	483	495	455	511
			면적	110	225	86	76	65	70	162
		상업지역	건수	2	-	19	19	20	30	27
			면적	1	-	2	2	1	12	7
		공업지역	건수	13	15	14	20	15	14	22
			면적	18	21	18	18	15	28	48
		녹지지역	건수	79	98	98	93	91	94	207
			면적	131	119	140	144	104	127	393
	개발제한구역								-	-
										-

연 도 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용도미지정 구역 외	건수		12	-	8	9	6	11	23
		면적		17	-	8	9	9	11	34
	도시계획구역 외	건수		485	562	639	547	660	659	613
		면적		816	1,136	1,091	1,188	1,211	1,124	1,213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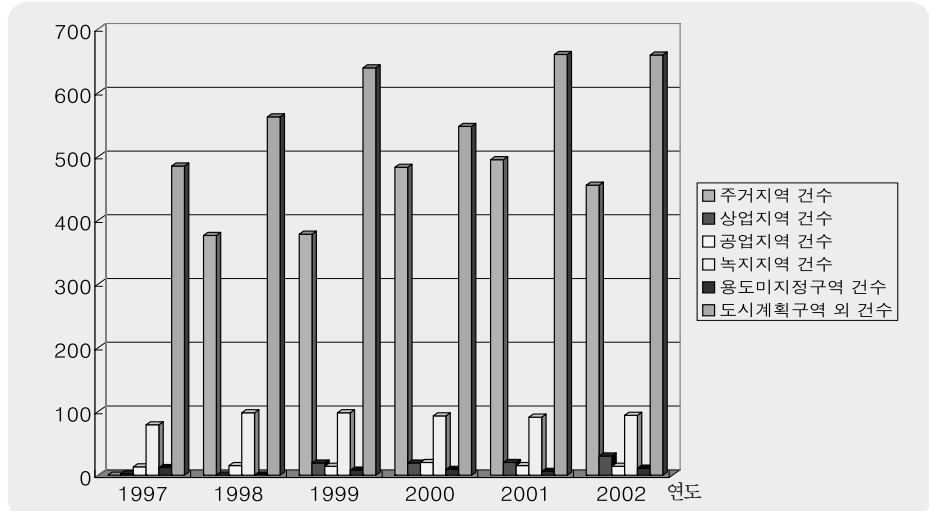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외 토지거래 건수와 면적은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역시 1997년 이래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녹지지역의 조성은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녹지지역의 거래건수도 또한 2003년 207건으로 199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도미지정구역외까지도 토지거래의대상이 되고 있는데 1997년 12건수가 었던 것이 점차 감소해 오다가 2002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 표 96. 증평군의 토지거래 현황

(단위 : 건수)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3. 도시계획

1) 도시계획

증평군은 목표연도를 2011년으로 해 인구, 계획구역 면적, 용도지역에 대한 상세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증평군은 2011년 인구를 77,000명으로 인구를 추계해 전망했다.

●● 표 97. 도시 계획(1)

(단위 : 천㎡)

연 별	기준년도	목표연도	인 구		계획구역 면적
			기준년도	목표연도	
1997	1991	2001	37,028	63,000	12,78
1998	1991	2001	37,028	63,000	12,78
1999	1991	2001	37,028	63,000	12,78
2000	1991	2001	37,028	63,000	12,78
2001	2001	2011	38,300	77,000	12,78
2002	2001	2011	38,300	77,000	12,78
2003	2001	2011	38,300	77,000	12,78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 표 98. 도시 계획(2)

(단위 : 천㎡)

연 별	용 도 지 역				
	합 계	주 거 지 역			
		소 계	주거전용지역	거 지 역	준주거지역
1997	12,78	2,31	-	2,31일반주	-
1998	12,78	2,31	-	2,31	-
1999	12,78	2,31	-	2,31	-
2000	12,78	2,31	-	2,31	-
2001	12,78	2,34	-	2,29	0,05
2002	12,78	2,34	-	2,29	0,05
2003	12,78	2,34	-	2,29	0,05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이는 충청권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 단지 등의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청주권내에 포함돼 있는 증평군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인구의 유입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 표 99. 도시 계획(3)

(단위 : 천㎡)

연 별	용 도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소계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소계	전용공업지역
1997	0,19	-	0,19	-	-	0,73	-
1998	0,19	-	0,19	-	-	0,73	-
1999	0,19	-	0,19	-	-	0,78	-
2000	0,19	-	0,19	-	-	0,78	-
2001	0,21	-	0,21	-	-	0,78	-

연 별	용 도 지 역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소계	중심상업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	유통상업	소계	전용공업지역
2002	0,21	-	0,21	-	-	0,78	-
2003	0,21	-	0,21	-	-	0,78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도시계획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누어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상업지역은 극히 낮은 수치로 보이고 있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 탈선 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업지역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강천 체육 및 시민공원

반면에 이렇다 할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주에 가서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을 듯하다.

2) 공원조성 현황

공원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어린이 공원을 위주로 해 많이 조성되고 있다. 도심 속에 공원이 많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자유로이 누릴 수 있다.

●● 표 100. 공원조성 현황

연별	총계		자 연 공 원						도 시 공 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어린이 공 원		근립공원		도시자연 공 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997	1	1,5	-	-	-	-	-	-	1	1,5	-	-	-	-	-	-	-	-
1998	1	1,5	-	-	-	-	-	-	1	1,5	-	-	-	-	-	-	-	-
1999	7	15,3	-	-	-	-	-	-	7	15,3	-	-	-	-	-	-	-	-
2000	16	434	-	-	-	-	-	-	10	22	6	412	-	-	-	-	-	-
2001	15	433	-	-	-	-	-	-	10	22	5	411	-	-	-	-	-	-
2002	15	433	-	-	-	-	-	-	10	22	5	411	-	-	-	-	-	-
2003	15	433	-	-	-	-	-	-	10	22	5	411	-	-	-	-	-	-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제7절 사회간접자본

제7절

1. 편의시설

한 지역의 산업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에너지의 이용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가 바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다. 이러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는 단지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생활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한 지역의 에너지의 소비량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산업화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2차적인 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유류나 가스 등은 교통과 난방을 위한 에너지 형태로 사용된다. 물론 전기 에너지원의 상당수는 석유가 차지하고 있다.

1) 증평지역의 전력 사용 현황

증평군의 용도별 전력사용량을 살펴보면 1997년 이후 전체 전력사용량이 2001년까지 증가했다가 2002년에 급감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총전력사용량이 2001년 수준보다도 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표 101. 용도별 전력사용량(1)

(단위 : MWh)

연 별	합 계		가정용		공공용		서비스업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1997	241,835	100.0	35,015	14.5	9,306	3.8	34,543	14.3
1998	287,327	100.0	45,208	16.0	13,203	5.0	45,550	16.0
1999	342,137	100.0	46,777	14.0	14,458	4.0	60,339	18.0
2000	403,828	100.0	49,200	12.0	16,751	4.0	86,070	21.0
2001	452,406	100.0	50,876	11.0	18,882	4.0	118,737	26.0
2002	187,718	100.0	20,539	11.0	12,977	7.0	69,218	37.0
2003	517,749	100.0	57,032	11.0	24,625	4.8	136,320	26.3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 ● 표 102. 용도별 전력사용량(2)

(단위 : MWh)

연 별	산 업 용							
	소 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1997	162,971	67.4	16,672	10.2	6,638	4.1	139,661	55.7
1998	183,366	64.0	28,532	10.0	6,353	2.0	148,481	52.0
1999	220,503	64.0	33,714	10.0	6,738	2.0	180,051	53.0
2000	251,807	62.0	38,370	10.0	6,963	2.0	206,474	51.0
2001	263,911	58.0	42,188	9.0	8,558	2.0	213,165	47.0
2002	84,984	45.0	8,951	5.0	760	0.0	75,273	40.0
2003	299,772	57.9	38,839	7.5	11,603	2.2	249,330	48.2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이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가정용의 경우 총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내외로 그리 크지 않지만 사용추세를 살펴보면 가정용 전력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증평군의 인구 및 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공공용 전력사용량도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전력사용량은 전체 전력사용량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전력사용량의 비중은 약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읍 보강천 풍력발전기

증평군의 전력사용량은 주로 산업용 전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제조업의 전력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의 경우 전력사용량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업의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이 전체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광업의 사업체가 증평군에 2003년 기준으로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경우 전력사용량은 1997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전력사용량이 급감한 이후 2003년에는 원래 수준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전자부품, 음향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및 생산액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가스사용과 공급량

증평지역의 가스 사용의 대부분은 바로 가정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판 가스와 부탄가스의 사용량을 살펴보면 증평군의 인구의 증감과 같은

증감을 보여야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프로판 가스의 경우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탄가스의 경우에는 2000년에 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했다.

● ● 표 103. 가스공급량

연 도	도시가스		프 로 판		부 탄	
	판매소수	판매량(km)	판매소수	판매량(t)	판매소수	판매량(t)
1997	-	-	4	1,266	1	1,013
1998	-	-	4	1,329	1	939
1999	-	-	4	1,321	1	1,341
2000	-	-	4	1,472	1	2,235
2001	1	1,972	5	1,434	1	2,461
2002	1	3,577	5	1,457	1	2,375
2003	1	6,137	5	1,271	2	2,546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도시가스의 경우 2001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스의 공급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공급은 증평군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 상수도시설 현황과 과제

증평군 내의 총인구는 줄었지만 급수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급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설용량의 경우에도 2001에 시설용량을 증가시켜 증평군민들에게 원활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표 104. 상수도 급수현황

(단위: 인, %, m³/일, l)

연 도	급수도 시내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급수량	1일1인당 급수량	급수전수
1997	33,280	22,280	67	11,000	7,283	327	3.995
1998	33,118	21,917	66	11,000	7,290	333	3.665
1999	33,488	22,169	66	11,000	6,558	296	3.668
2000	32,464	22,393	69	11,000	6,501	290	3.710
2001	31,575	22,418	71	24,000	7,221	322	3,804
2002	30,940	22,847	73.8	24,000	7,401	323.9	4,010
2003	31,520	23,798	75.5	24,000	8,477	356	4,234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증가하자 급수량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인당 급수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에 맞추어 급수전수와 시설용량이 증가해

중평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 표 105. 급수사용량

(단위 : m³)

연 별	합 계	가정용	영업용	목욕탕용	공업용	업무용	임시용	기 타
1997	2,046,634	1,438,157	292,331	5,323	-	310,823	-	-
1998	1,958,932	1,398,498	286,517	4,893	-	269,024	-	-
1999	1,965,351	1,408,338	273,829	1,818	-	281,366	-	-
2000	1,953,156	1,387,959	284,284	4,894	-	276,019	-	-
2001	1,974,385	1,348,947	295,936	10,153	-	319,349	-	-
2002	2,047,897	1,328,752	286,561	6,781	-	425,803	-	-
2003	2,338,798	1,435,152	308,539	11,467	-	583,640	-	-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급수 사용량을 살펴보면 1997년과 2003년의 경우 2,046,634m³와 2,338,798m³로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볼 때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가정용이 다른 용도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평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업용의 경우 사용량이 없어 중평군의 산업시설 기반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중평읍 연탄리 하수종말처리장 전경

4) 하수시설의 현황과 과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된 환경문제는 하수처리 문제를 주거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했다. 이제 지역의 장기계획에 있어 하수도 문제는 초기부터 계획적으로 실행돼야 할 필수 부분이 됐다.

중평군의 경우 하수처리 보급률이 1997년에 비해 2002년이 0.6% 하락해 하수처리 능력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06. 하수도현황

(단위 : 명, 건)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합계	물리적(1차)	생물학적(2차)	고도(3차)	
1997	33,280	24,616	-	24,616	-	74.3
1998	33,118	24,464	-	24,464	-	73.9
1999	33,488	24,565	-	24,565	-	73.4
2000	32,464	23,892	-	23,892	-	73.6
2001	31,575	23,397	-	23,397	-	74.1
2002	30,940	22,816	-	22,816	-	73.7
2003	31,520	23,796	156	23,640	-	75.5

□ 중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5) 쓰레기 처리현황과 과제

증평군의 쓰레기 처리현황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100%를 보이고 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역시 1999년 이후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증평군의 인구가 1999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뇨 배출량을 살펴보면 증평군 인구의 감소에 따른 분뇨량의 감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2002년의 수거식의 분뇨발생량을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2m³증가했다.



도안면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전경

●● 표 107. 쓰레기 수거현황

(단위 : km², 인, 톤/일, %)

연 별	행정구역 (A)		청소구역 (B)		수거지인구 율(B/A)	배출량 (C)	처리량 (D)	수거율 (D/C)
	면적	인구	면적	인구				
1997	81.8	33,280	81.8	33,280	100	32.7	32.7	100
1998	81.8	33,118	81.8	33,118	100	33.5	33.5	100
1999	81.8	33,488	81.8	33,488	100	35.6	35.6	100
2000	81.8	32,464	81.8	32,464	100	26.0	26.0	100
2001	81.8	31,575	81.8	31,575	100	22.2	22.2	100
2002	81.8	30,940	81.8	30,940	100	17.92	17.92	100
2003	81.8	31,310	81.8	31,310	100	22.5	22.5	100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수세식의 경우에는 2001년에 비해 1m³가 감소해 수세식보다 수거식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증평군이 농업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처리량은 60%수준을 보이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1개소로 도안면 광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1년 매립면적의 증가로 잔여 매립 가능량이 2002년을 기준으로 180,241m³이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0년 정도는 매립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표 108. 분뇨 배출량 및 수거현황

(단위 : 세대, 천명, m³/일)

연별	분뇨발생 (수거지)인구				분뇨발생량 (m ³ /일)			처리량 (m ³ /일)		
	세대수	인구(천명)			계 수세식 수거식			계 수거분뇨 정화조		
		합계	수세식	수거식						
1997	-	33	16	17	-	-	-	-	-	-
1998	-	33	21	12	-	-	-	-	-	-
1999	-	33	23	10	-	-	-	-	-	-

연별	분뇨발생 (수거지) 인구				분뇨발생량 (m ³ /일)			처리량 (m ³ /일)		
	세대수	인구(천명)			계			계		
		합계	수세식	수거식				수거분뇨	정화조	
2000	10,293	32	21	11	32	21	11	22	11	11
2001	10,261	31	21	10	31	21	10	20	10	10
2002	10,197	30	20	10	32	20	12	21	10	11
2003	10,197	31	21	10	31	21	10	22	11	11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 ● 표 109. 쓰레기 매립지 현황

(단위 : 개소, m, m³)

연별	개소	면적	매립고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1997	1	27,300	5	135,000	68,000	67,000
1998	1	27,300	5	135,000	109,300	25,700
1999	1	27,300	5	135,000	129,000	6,000
2000	1	27,300	5	135,000	134,000	1,000
2001	1	50,596	5	315,841	117,000	198,841
2002	1	58,100	5	315,841	135,000	180,241
2003	1	58,100	5	363,061	147,400	215,661

☐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2. 산업 경제 관련기관단체

1) 농업기술센터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는 1960년에 괴산군청 농사계에서 지도소 청사 준공으로 시작해 1991년 4월 1일에 증평상당소가 설치됐고, 2002년 7월 15일 괴산군과 증평군 간의 행정협약이 변경되면서 2003년 8월 31일에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로 개칭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살펴보면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 농촌지도자, 농업전문 경영인, 농민후계자, 전업농의 육성지도 등의 농업 전문인 교육 업무와 농민현장 애로

기술개발과 과학영농시설운영, 지역농업개발 등의 연구 업무와 영농정보센터 운영, 농업 기초 및 경영에 대한 종합 상담을 통한 상담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

2) 농업기반공사 증평지소

농업기반공사 괴산지사 증평지소는 1988년에 설립돼 증평 농민들의 후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 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종합 관리, 환경 친화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농업인의 영농 규모 적정화 촉진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구이며, 주요업무로는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자급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농업기반공사증평지소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 업무 수행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전업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하는 영농 규모화 적정화 사업 추진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먼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해 개발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충북인삼농협

충북인삼농협은 인삼의 증산, 인삼사업의 발전, 인삼 경작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경영이념으로 인삼 가격의 안정과 양질의 농자재 및 가격의 저렴화, 수입개방 대비 획기적인 영농개선, 경영혁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조합 육성, 고객 만족, 인간 존중의 조합육성을 목표로 1955년 11월 15일 청안삼업조합으로 창립했다. 그 후 정부인가와 명칭 변경을 거쳐 1989년 1월 1일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1990년 10월 20일부터 여·수신업무를 취급 개시 했다. 또한 1997년 11월 27일 인삼가공공장을 신축했으며,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으로 출범했다.



충북인삼농협

충북인삼농협의 주요사업으로는 조합원의 인삼 경작지도, 조합원의 상호금 융지원, 홍삼류 제조, 홍삼류 판매 및 수·출입이 있다.

제8절

제8절 조세부담

1. 증평균 재정의 특징

증평균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의 경우 2002년 현재 일반회계 기준 사회개발비가 37,901백만원(6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 15,264백만원(24.5%), 일반행정비 8,123백만원(13.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현액의 경우 전반적으로 2001년에 비해 2002년에는 5,898 백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일반 행정비와 민방위비가 다소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증가했다.

세출구조를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일반회계 기준 사회개발비가 37,90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가 15,264백만원으로 24.5%로 나타나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전개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평균은 군 승격에 따른 세입 · 세출규모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구조의 확보가 요망되고 있다.

●● 표 110. 증평균의 재정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1	구성비	2002	구성비
예산현액	56,284	100.0	62,182	100.0
일반행정비	8,287	14.7	8,124	13.2
사회개발비	36,797	65.4	37,901	61.0
경제개발비	10,269	18.2	15,264	24.5
민방위비	322	0.6	193	0.3
지원 및 기타경비	608	1.1	701	1.1
세 출	53,221	100.0	62,182	100.0
일반행정비	8,232	15.5	8,124	13.2
사회개발비	35,751	67.2	37,901	61.0
경제개발비	8,331	15.7	15,264	24.5
민방위비	297	0.6	193	0.3
지원 및 기타경비	608	1.1	701	1.1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통계연보, 2002 / 충청북도 증평군, 통계연보, 2003

2. 지방세 부담액 현황

지방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11,593,057천원의 지방세를 증평균

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충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로써 인구와 세대에 비해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부담액의 경우도 충북 평균에 비해 72,262원 적게 지불해 약 0.83배 적은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대 당 부담액도 충북 평균과 비교해 0.85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1. 지방세 부담

(단위 : 천원, 명, 원)

구분	연도	지방세	인구	1인당부담액	세대	세대당부담액
충북(A)	2001	603,088,237	1,496,520	402,994	499,739	1,206,806
	2002	670,853,830	1,492,713	449,419	508,561	1,319,122
증평(B)	2001	11,662,897	31,575	371,525	10,261	1,136,624
	2002	11,593,057	30,940	377,157	10,324	1,122,923
B / A	2001	0.02	0.02	0.92	0.02	0.94
	2002	0.02	0.02	0.83	0.02	0.85

3. 지방세 수입의 구조적 특징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의 자주재원비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증평균의 지방세 수입은 2002년에 11,593백만원으로 충북전체에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평균 수준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써 인구비중을 고려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더라도 도, 시 평균, 군 평균은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증평균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의 1인당 부담액을 보면 충북과 여타 시도 평균에 크게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에서도 증평균은 1.5% 증가에 그치고 있다.

세대당 부담액의 경우에도 충북 및 여타 시 · 군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평균의 세대당 부담액은 2001년에 비해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12. 지방세 타 시군과의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지 방 세			1인당 부담액			세대당 부담액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2001	2002	증감률
충북	603,088	670,854	11.2	403	449	11.5	1,207	1,319	9.3
시평균	126,842	142,853	12.6	382	423	10.9	1,157	1,259	8.9
군평균	26,363	28,838	9.4	383	423	10.4	1,111	1,199	7.9
증평균	11,663	11,593	-0.6	372	377	1.5	1,137	1,123	-1.2

☐ 증평균,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3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통계연보, 2002 / 충청북도 증평균, 통계연보, 2003.

보이고 있으나 1998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세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해 비교해 보면 자주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군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그친데 반해 도세는 연평균 증가율이 23.3%로 크게 증가해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표 95. 지방세의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

연 도	도시가스		시·도·세		시·군·세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998	7,557	-5.1	1,934	-27.5	5,621	6.2
1999	8,018	6.1	2,790	44.3	5,228	-7.0
2000	8,986	12.1	2,896	3.8	6,090	16.5
2001	11,663	29.8	5,101	76.1	6,562	7.8
2002	11,593	-0.6	5,510	8.0	6,083	-7.3

□ 증평균, 『증평균 통계연보』, 각년도.

증평균의 지방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2002년 현재 보통세가 91.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목적세는 9.0%로 나타났다.

세입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은 담배소비세로 2002년 지방세 수입의 26.5%에 달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의 2001년 대비 증감률은 21.7%로 감소했고, 연평균 증가율 또한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배소비세가 정액세로 돼 있어 경제발전과 물가상승에 상응하는 세수 증대가 어렵고 건강에 대한 국민의식구조의 변화와 정부의 금연정책에 힘입어 흡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비세 다음으로 세입 기여도가 높은 세목은 주민세로 2002년 전체 지방세수입의 1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8.0%로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신장률이 높은 세목이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다음으로 세입 비중이 높은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 지방세수입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자동차세 구조가 보유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향후 자동차세율의 상향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향후의 자동차세제는 보유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운행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보유과세가 기간세원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표 114. 세목별 지방세의 구조 및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보통세	주민세	788	21.6	698	-11.4	1,170	67.6	1,111	-5.0	1,158	4.2
	재산세	320	10.0	306	-4.4	322	5.2	355	10.2	357	0.6
	자동차세	1,355	6.7	1,143	-15.6	1,159	1.4	1,073	-7.4	941	-12.3
	주행세	-	-	-	-	147	-	333	126.5	464	39.3
	종합토지세	455	-5.6	483	6.2	467	-3.3	598	28.1	564	-5.7
	농업소득세	-	-	-	-	-	-	6	-	2	-66.7
	담배소비세	1,777	3.0	1,701	-4.3	1,883	10.7	2,059	9.3	1,612	-21.7
	도축세	315	-2.2	279	-11.4	332	19.0	277	-16.6	280	1.1
목적세	사업소세	141	-14.0	146	3.5	157	7.5	171	8.9	184	7.6
	도시계획세	312	2.0	310	-0.6	322	3.9	361	12.1	363	0.6
과년도 수입		150	80.7	159	6.0	187	17.6	218	16.6	159	-27.1
합계		5,613	6.1	5,225	-6.9	6,146	17.6	6,562	6.8	6,084	-7.3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인 종합토지세목을 보면 9.3%의 세입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네 번째로 세입비중이 큰 세목이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연평균증가율은 4.4%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대비 증감률은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과표 현실화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시 공시지가에 대비한 과표액의 산정비율은 시장 및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 및 조정지침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지방세를 설계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 없다.

□ 증평군, 『증평군 통계연보』, 각년도.

